

太平天國時期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과 恭親王

—1860년을 중심으로—

表 教 烈*

- | | |
|--|--|
| 더 릿 말
I. 1850년대의 「借兵助剿論」
II. 1860년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
1. 太平軍의 東進과 上海官紳의 危機意識
2.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 | III. 프랑스·러시아의 「助剿」제안에 대한 논의와 恭親王
1. 프랑스·러시아의 「助剿」제안과 恭親王
2. 지방대신의 贊反論과 恭親王
맺 음 말 —上海官紳의 반응— |
|--|--|

머 릿 말

太平天國을 진압하기 위해 열강의 군사를 借用한다는 이른바 「借兵助剿」案이 淸朝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은 것은 1862년 2월 8일(同治元年 正月 10日)의 일이지만,¹⁾ 그러한 논의는 일찌기 太平天國이 南京에 진입하기 이전인 1850년대 초부터 양자강 하류지역의 관료와 신사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들 官紳이 太平天國의 진압을 위해 열강으로부터 인고자 했던 원조의 범주속에는 열강의 직접적인 군사개입, 군함 및 무기의 제공, 청조군을 훈련시킬 군사요원의 파견, 비정규 용병대를 훈련하고 지휘할 장교의 파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²⁾ 적어도 청조에게 있어서는 「借兵助剿」의 개념이 열강으로부터 太平軍과 대적할 군사를 비는 의미로 쓰

* 사학과 전임강사

- 1) 《籌辦夷務始末》(이하 《始末》로 略)(同治朝) 卷 4, 2b~3b.
- 2) S. Y. Teng, *The Taiping Rebellion and the Western Powers*, London, 1971, reprinted by Yee Wen Publishing Co., 1977(이하 *Western Powers* 로 略), p. 289; Philip A. Kuhn, "The Taiping Rebellion,"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10, Late Ch'ing, 1800~1911, Part I, Cambridge Univ. Press, 1978, p. 304.

여저 청조에 고용된 개인이나 집단은 이 개념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³⁾ 常勝軍이나 常安軍·常捷軍 등은 淸朝측으로부터나 영불당국으로부터도 묵인 내지는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군함, 무기지원과 함께 「借兵助剿」 개념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⁴⁾

이러한 「借兵助剿」論은 太平天國時期的 거의 전기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진기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단계는 1850년대로써 양자강 하류지역의 官紳들이 조정과 열강에 대해 「借兵」과 「助剿」의향을 탐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열강이 이른바 “中立”을 내세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두번째 단계는 太平軍이 江浙지방으로 東進하면서 (第一次) 上海공격을 시도하는 1860년 중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上海를 중심으로 한 官紳들이 적극적으로 열강에 대해 「助剿」를 요청하는 한편 조정에 대해서도 列強에 和議를 맺음으로써 그들로부터 「借兵助剿」토록 하자는 奏請을 올리는 시기이다. 당시는 영불연합군이 北上을 준비하고 北京을 점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청조와 열강간의 대립이 가장 첨예화된 시기이기도 했는데, 당시 열강은 ‘中立’을 내세우면서도 上海를 공동방어하고 있다. 세째 단계는 북경조약 직후 프랑스와 러시아의 「助剿」 제안에 따른 지방대신들의 論議시기로서, 이제는 和約을 맺은 淸朝가 「借兵助剿」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게 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恭親王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한데, 英國의 간섭으로 양국의 제안이 유보되는 1861년초까지의 시기이다. 네번째 단계는 1862년초 太平軍의 (제2차) 上海공격에 즈음하여 中外會防局이 성립됨으로써 청조가 정식

3) Erh-min Wang, "China's Use of Foreign Military Assistance in Lower Yangtze Valley, 1860~1864," (이하 "China's Use"로 略)《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二期, 1971, p. 537 참조.

4) 1860년 6월 江浙 官紳의 후원으로 조직된 洋槍隊는 淸朝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출발한 것으로, 영국으로부터 해산 중용을 받고 있고 청조도 이를 승인하고 있지만(주 110 참조), 1862년 3월에는 청조로부터 “常勝軍”이란 명칭까지 받고 있고, 常安軍·常捷軍과 함께 열강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Teng은 열강이 상송군의 형태로 위장하였다 하여 이를 간섭의 첫단계로 보고 있다(Teng, *Western Powers*, pp. 297, 302~3).

으로 「借兵助剿」를 승인하고 列強이 정식으로 ‘간섭’하게 되는 단계이다. 바로 전회에 발생한 辛酉政變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에도 「借兵助剿」활동은 上海 官紳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열강의 무력간섭이 太平天國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⁵⁾ 그러나 「借兵助剿」論이 갖는 의미는 위에서 그 흐름을 살펴 보았듯이 淸朝가 對外協助政策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恭親王의 對外認識의 變化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洋務派의 登場이라는 면과도 직결될 것이다.⁶⁾ 그런 意味에서 太平天國의 진압을 계기로 성장한 湘軍·淮軍 지도자의 「借兵助剿」에 대한 태도를 살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주로 열강의 太平天國과 淸朝에 대한 태도의 해명,⁷⁾ 曾國藩·李鴻章 등 湘·淮軍의 成長,⁸⁾ 上海紳商의 活動,⁹⁾ 太平天國의 입장¹⁰⁾ 및 淸朝의 입장¹⁰⁻¹⁾ 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우선 앞에 든 네 단계중 1860년을 중심으로 세번째 단계까지만 다루고자 한다. 「借兵助剿」論이 어디까지나 上海를 중심으로 한 官紳에게서 나왔고 그들이 끝까지 주도했다면, 1860년 당시 창조와 열강의 참여한 갈등 속에서 적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과연 兩江總督 何桂清이 열강에 「借兵助剿」를 요청한다는 구실로 上海에 도피하려

5) J.S. Gregory, *Great Britain and the Taipings*, London, 1969, Introduction, XV 참조.

6) 王仁忱, 〈十九世紀六十年代到九十年代淸政府的洋務運動〉, 存萃學社編, 《洋務運動研究論集》, 香港, 1973, p.6 참조.

7) S.Y. Teng, *Western Powers; J.S. Gregory, Great Britain and the Taipings*; 植田捷雄, 〈太平亂と外國〉, 《國家學會雜誌》62-9-12, 63-1.2.3.

8) Erh-min Wang, "China's Use."

9) Wang, "China's Use," 外山軍治, 〈太平亂に於ける淸朝の外國に對する援助要淸〉, 《史林》31-3.4(1949); 〈上海の紳商楊坊〉, 《東洋史研究》9-3(1944).

10) 茅家琦, 《太平天國對外關係史》, 北京, 1984; 沈自敏, 〈太平天國期間中外反革命底勾結過程〉, 華北大學歷史研究室編, 《太平天國革命運動論文集》, 三聯書店, 1950 등.

10-1) 茅家琦, 〈試析咸豐帝拒絕“借師助剿”的原因〉, 《歷史研究》1983-3,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復印報刊資料》, K3 中國近代史, 1983. 8; 公孫匄, 〈“辛酉政變”與“借師助剿”一兼評肅順等人〉, 《河北學刊》1983-3, 《復印報刊資料》, 同, 1983. 9.

했다는 評¹¹⁾은 정당한 것인가. 그밖의 官紳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당시의 상황과 상해 官紳의 意識을 살피므로써 「借兵助剿」論의 성격을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들 上海官紳의 논의는 북경조약 후의 프랑스·러시아의 원조제외에 관한 지방대신들의 논의 과정속에 다시 투영되고 있는데, 曾國藩 등 여타 대신들의 찬반론과 대비하므로써 그 性格이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피상적으로 다루어져온 것이다.

특히 北京條約 후 실질적 제일인자가 되어 외교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있던 恭親王의 태도는 「借兵助剿」論의 수용여부의 관건이 된다 할 수 있다. 恭王에 대한 평가는 이미 레이(Lay)를 총세무사에 임명할 때부터 관세행정권을 팔아 太平天國을 박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보는 관점¹²⁾에서부터 국가의 주권개념을 갖고 단호히 반대했다는 평가¹³⁾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恭王은 北京條約 이후 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음은 분명한데¹⁴⁾ 「借兵助剿」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이후 대외 협조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恭王의 태도에 대한 上海官紳의 반응을 살피므로써 이후의 그들의 활동방향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I. 1850년대의 「借兵助剿」論

「借兵助剿」論이 제기된 것은 太平軍이 南京을 점령하기 이전인 1853년 초 上海道台 吳健彰, 江蘇巡撫 楊文定 등 양자강 하류의 지방관에 의한 것

11) Wang, "China's Use, pp. 553~4 참조.

12) 沈自敏, 상계 <勾結過程>, pp. 72~3. 來新夏는 天津條約 자체내에 이러한 결합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주장한다. <關於第二次鴉片戰爭後中外反動勢力結合的問題>, 《歷史教學》1954-11, p. 30. 牟安世, 《太平天國》, 上海, 1979, p. 367도 참조.

13) L. W. Grady, *The Career of I-Hsin, Prince Kung, 1858~1880; A Case Study of the Limits of Reform in Late Ch'ing*, Ph. D. Diss., Univ. of Toronto, 1980, pp. 170~1.

14) 拙稿, <1860年 英佛聯合軍에 대한 清朝의 對應—파아크스의 拘禁事件과 恭親王—>, 《釜山史學》10, 1986, 2, p. 61 참조.

이었다. 그러나 전해에도 寧波·上海 등지에 정박하고 있는 夷人의 火輪船을 후한 보상을 주고 양자강에 파견하여 助剿토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¹⁵⁾는 점을 고려하면, 吳健彰 등의 활동은 당시 태평천국의 진격에 따른 일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吳健彰은 소문에 의하면 1853년 2월 영국측에 가서 火輪船 5척을 빌었다는 것인데, 영국은 太平天國이 일어난 후 상품가격이 올라서 「助順」을 원했기 때문에 九江까지 가서 協剿하러 한다는 것이었다.¹⁶⁾ 그러나 이 계획은 兩江總督 陸建瀛이 동의하지 않아 잠시 연기된 것이었다.¹⁷⁾ 남경이 위태로워지자 吳는 다시 3월 1일 楊文定의 이름으로 영국 영사 알콕(Alcock)에게 군함 릴리(Lily)호가 남경에 와서 남경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¹⁸⁾ 15일에는 프랑스 영사 몽페니(de Montigny)에게 전함 카시니(le Cassini)호를 남경에 보내 달라 요청하고 있는데,¹⁹⁾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

3월 19일 남경이 함락되고 陸建瀛이 사망한 후 署兩江總督에 오른 楊文定도 上奏文에서 瓜洲·鎮江의 함락을 전하면서 영국공사가 원래 總督의 照會를 얻으면 즉시 助剿할 것이라 했다면 吳健彰을 보내 성사되길 바라고 있다.²⁰⁾ 또한 欽差大臣 向榮도 楊文定이 보내온 咨文을 인용하여, 吳健彰에 의하면 夷人은 太平軍이 上海에 와서 약탈할까 두려워 자기들의 화물을 보호하는 데에만 그치고 감히 나아가 助剿하러 하지 않아 夷酋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한다고 上奏하고 있다.²¹⁾ 이러한 助剿의 요구는 영·불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행해졌다. 楊文定の 奏에 의

15) 夏燮, 〈五口卹端〉, 《中西紀事》(1865), 卷 11, 5a.

16) 趙烈文, 《落花春雨集日記》卷 2, 咸 3.1.8, 太平天國歷史博物館編, 《太平天國史料彙編簡輯》(上海, 1962; 이하 《簡輯》으로 略) 第3冊, p. 26.

17) Wang, "China's Use," p. 548.

18) F. O. 17/200, Teng, *Western Powers*, p. 209 所引.

19) B. Maybon, Jean Fredet, *Histoire de la Concession Francaise de Changhai* (Paris, 1929), 范希衡譯, 〈上海租界當局與太平天國運動〉(이하 〈上海租界史〉로 略), 南京大歷史系太平天國史研究室編, 《江浙豫皖太平天國史料選編》, 江蘇人民, 1983, pp. 388~9; Wang, "China's Use," pp. 548~9.

20) 太平天國歷史博物館編, 《吳煦檔案選編》(江蘇人民, 1983; 이하 《吳煦檔》으로 略) 第一輯, 1853. 4. 7, p. 3.

21) 《始末》(咸豐朝)(中華書局本, 1978) 卷 6, 咸 3.3.30, No. 220, p. 202.

하면 작극중 가장 恭順한 미국은 吳健彰과 火輪船을 파견하여 助剿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좌초하여 돌아갔다는 것이다.²²⁾

이처럼 남경 함락을 전후한 이 시기의 「借兵助剿」 활동은 上海道台 吳健彰을 중심으로한 兩江總督 등 地方大臣들이 주도한 것임을 알았는데, 吳가 중심역할을 한 것은 그가 상해에 위치하고 있어 열강과 교섭하기 쉬웠을뿐만 아니라, 吳의 출신이 원래 廣東十三行 출신으로 그들과 잘 통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²³⁾ 이때의 「借兵」 내용은 남경을 구하기 위해 해군력을 직접 비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의 경우 영사 엘룩이나 전권대신 이자 홍콩총독인 본햄(Bonham)은 영국의 무역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 무력개입을 원하고 있었으나 남경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엄정중립」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吳의 원조요구를 거절한 것이었다.²⁴⁾ 본햄 일행이 4~5월 남경을 방문한 것도 대평천국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프랑스의 부르블롱(Bourboulon)도 12월 남경방문 전에 본햄을 방문하고 「엄정중립」에 합의하고 있다.²⁵⁾ 미국의 전권대신 마샬(H. Marshall)의 경우는 太平天國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본국에 청조를 지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²⁶⁾ 청조에 兵船을 지원하려 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²⁷⁾ 이후 이들의 「借兵助剿」 계획은 「借用兵船」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吳健彰의 「借用兵船」 노력도 각국이 빌려줄 전략이 없다 하므로써 거절당하고 있다.²⁸⁾

22) 《始末》卷 6, 咸 3.3.30, No. 221, p. 203; 咸 3.4.21, No. 225, pp. 205~6, 向榮의 奏.

23) 주 37) 참조.

24) Teng, *Western Powers*, pp. 207~210 참조.

25) 同上, pp. 210~218 참조.

26) 同上, pp. 220~3 참조. 당시 미국무장관 Marcy 는 불간섭정책을 존중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p. 222), 미국내의 太平天國에 대한 호의적 여론으로 마샬은 J. Walker 로 교체되고 있다(pp. 223~4).

27) 曾國藩도 美酋가 向榮에게 兵船으로 助剿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하고 있다. 〈檔案史料〉, 中國史學會編, 《第二次鴉片戰爭》(上海, 1978; 이하 《第二次》로 略)(五), 咸 10.11.8, No. 420, p. 331.

28) 《始末》卷 6, 咸 3.4.21, No. 225, pp. 205—6, 向榮 등의 奏; 咸 3.4.24, No. 226, p. 206, 楊文定の 奏. 앞의 奏에는 「覽」이란 硃批를 받고 있어 조경에서도 「借用兵船」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의 좌절감은 영·불·미의 잇다른 南京 방문에 따른 太平軍과의 衝突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불에 이어 54년 5월에는 미국의 맥레인(R. M. McLane)이 남경을 방문하고 있고, 본햄의 후임으로 온 바우링(J. Bowring)도 6월에 남경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들의 南京 방문 결과가 전반적으로 太平天國에 不利한 것이었음³⁰⁾에도 불구하고 清朝측에게는 이들이 太平天國과 연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본햄 일행이 鎮江을 통과한 것을 보고하면서 向榮 등은 그들이 반드시 「助逆」한다 할 수는 없으나, 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助逆」할지 「助順」할지 실로 헤아리기 어렵다 한 것³¹⁾이나, 佛의 화륜전 1척이 양자강에 진입한 12월에 吳健彰이 佛의 부영사 에당(Edan)에게 항의 照會를 보내 속히 돌아갈 것을 촉구한 데서도³²⁾ 잘 나타난다. 이러한 의구심은 小刀會가 上海를 점령한 기간중에 더욱 잘 나타나는데, 上海를 속히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英夷가 米糧·화약 등 일체 품목을 이들에게 조달하며 「漁利」를 얻기 때문이며,³³⁾ 賊은 夷를 주요한 후원자로 생각하고 夷는 賊을 이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英夷는 상해의 전투가 조속히 끝날까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³⁴⁾ 당시 앨콕도 화약·식량을 판매하여 「漁利」를 취하는 夷商이 심중팔구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다.³⁵⁾ 뿐만 아니라 英夷는 “어느편도 돕지 않는다” 하면서도 음으로 「助賊」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항의하기도 했다.³⁶⁾

29) Teng, *Western Powers*, pp. 225~30 참조.

30) 同上, p. 230.

31) 《始末》卷 6, 咸 3. 3. 30, No. 220, pp. 202~3; No. 221, p. 203 및 咸 3. 4. 24, No. 226, p. 206, 楊文定の 奏; 夏燮, 〈五口舛端〉, 《中西紀事》卷 11, 5b도 참조.

32) 《始末》卷 7, 咸 3. 12. 4, No. 266, p. 235.

33) 《吉爾杭阿陳時事裏》, 《吳煦檔》(1), 1954. 3, p. 128; 《始末》卷 7, 咸 3. 10. 21, No. 263, p. 233. 당시 화약값이 한 상자당 洋銀 3圓 하던 것이 25·6圓으로 폭등했다 한다(p. 233).

34) 《始末》卷 7, 咸 4. 3. 22, No. 284, p. 251.

35) 《始末》卷 7, 咸 4. 1. 24, No. 276, p. 242.

36) 《始末》卷 7, 咸 4. 1. 24, No. 276, pp. 241~2; 咸 4. 3. 22, No. 284, p. 252; 咸 4. 4. 4, No. 286, p. 254; 卷 8, 咸 4. 6. 13, No. 312, pp. 276~7. 夏燮, 〈五口舛端〉, 《中西紀事》卷 11, 6a~6b에는 앨콕이 上海 小刀會의 劉麗川의 서한을 太平에 전달하려다 도중에서 발각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강이 「중립」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무역에 관한한 양측에 공개적으로 거래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인데, 이 시기는 마침 조약개정교섭 시기였고 청조가 군사원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강은 太平天國과 소도회의 상해점령을 이용, 「중립」정책을 지속적으로 표방하므로써 청조에 압목의 압박을 주고 보다 많은 특권을 확보하려는 정책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금까지 「借兵助剿」의 협상주역이었던 吳健彰이 小刀會件으로 탄핵되자³⁷⁾ 그 役割을 맡은 자가 江蘇巡撫 吉爾杭阿였다. 미국의 맥레인은 兩江總督 怡良에 양자강무역 일대의 무역을 허락해 줄 것을 代奏해 달라 요청하면서, 만일 (양자강 무역을) 허락받는다면 助剿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怡良은 廣東으로 돌아가라 하여 거절한 바 있었다.³⁸⁾ 吉爾杭阿는 이에 대해 동조를 하면서도 上奏文의 마지막에 “맥레인이 12년후 조약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집하여 漢口에 이르기까지 부두를 전횡하고자 하니 그 기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이 기회에 重臣을 파견하여 章程을 정하므로써 그 講하는 바를 허락하느니만 못하다. 미국은 영국과 다르다”라는 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물론 인용구 뒤에 이 말이 생각하는 바가 짝아 결코 浮議에 현혹되어 「引狼入室」할 수 없다 하면서 단지 실정만을 보고한다 하고 있지만,³⁹⁾ 혹자의 말을 이렇듯

37) 吳는 光祿寺少卿 程恭壽로부터 탄핵을 받고 있는데, 小刀會 수령 劉麗川은 吳와 동향으로 吳의 회계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그 匪黨도 모두 吳의 練勇으로서 이들을 적극 지원했다는 점, 吳는 廣州에서 行商을 하여 夷와 친숙하여 夷에 이용됐다는 점, 關稅를 착복했으며 양인과 旗昌洋行을 세웠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始末》卷 8, 咸 4. 6. 17, No. 317, pp. 282~3). 黃宗漢(浙江巡撫)의 조사도 대체로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始末》卷 10, 咸 5. 2. 17, No. 413, pp. 380~2). 영불연합군이 북상할 즈음 陳孚恩은 夷務를 辦理하는 데는 반드시 吳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여 廉煥과 함께 吳를 入都시킬 것을 上奏하고 있다[前清華大學歷史系輯, 《籌辦夷務始末補遺》(이하《補遺》로 略), 《第二次》(二), 咸 10. 閏 3. 8, p. 199].

38) 《始末》卷 8, 咸 4. 6. 21, No. 320, pp. 285~6. 咸 4. 閏 7. 7, No. 332, p. 297, 吉爾杭阿의 奏도 참조. 怡良은 비록 「助順之語」가 있지만 “던을수 없다”고 하여 「助剿」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上諭는 맥레인을 廣東으로 돌려보낼 것만 지시하고 「助剿」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始末》卷 8, 咸 4. 6. 21, No. 322, p. 288).

39) 《始末》卷 8, 咸 4. 閏 7. 7, No. 333, pp. 298~300.

상세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은 본인(혹은 총독까지 포함한 지방관들)이 하고 싶은 말을 혹자에 가탁하여 표현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맥레인의 조약개정 요구에 응하여 그 댓가로 「助剿」의 도움을 얻자는 上奏인 것이다.

吉爾杭阿의 이러한 의향은 한달 반이 좀 지난 뒤에 올린 上奏文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바우링·맥레인·부르블통과의 면담시 조약개정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전에 왔을 때는 무역을 허락한다면 賊匪를 함께 구축하고 상인들에 납세하도록 하여 軍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는 깊이 믿을 바 못되나 그 말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상해에 왔을 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助順討逆」이 이를 빌미로 조약개정요구를 하기 위한 계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그들이 「助逆犯順」할 것 같지는 않으며, 惡意가 없는 것 같으면서, 만약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면 힘을 합해 기미를 받지 않고 關稅를 내지 않으며 틈을 엿보아 마음대로 행동하므로써 「肘腋之患」이 될 것이고 危計를 만들어 낼 것이라 하고 있다.⁴⁰⁾ 열강의 대포들로부터 어느정도의 위협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吉爾杭阿의 문투는 강요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상주에 대한 上諭도 따라서 吉을 엄히 문책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驅賊·補稅한다는 말이 강한 의지가 있다든가, 그들에게 惡意가 없다든가, 반드시 장차 危計를 낼 것이라는 말은 그들을 너무 믿은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니 痛恨할 따름이라는 것이다.⁴¹⁾ 이후에도 吉은 맥레인의 「助順」의 뜻을 강조하고 조약개정교섭에 실패한 이들에 동경을 보임으로써, 吉은 조약개정에 응하여 小刀會 및 太平天國에 대한 「助剿」를 받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⁴²⁾

40) 《始末》卷 9, 咸 4.8.24, No. 336, pp. 304~6; 〈檔案史料〉, 咸 4.8.13, 《第二次》(三), pp. 13~16.

41) 《始末》卷 9, 咸 4.8.24, No. 337, pp. 306~7; 〈檔案史料〉, 咸 4.8.24, 《第二次》(三), No. 7, pp. 21~3.

42) 《始末》卷 10, 咸 4.10.30, No. 390, pp. 359~62. 이에 대한 문책 상유는 同, 咸 4.10.30, No. 391, p. 363 참조.

上海가 1855년 초 프랑스의 도움으로 탈환된 뒤⁴³⁾ 「借兵助剿」 움직임을 영국의 火輪船 雇傭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856년초 曾望顏은 4척의 火輪船을 江南紳商의 헌납으로 고용하여 양자강에 투입하면 賊船을 소탕할 수 있을 것이라 奏淸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上諭는 尙榮·怡良·吉爾杭阿에 火輪船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⁴⁴⁾ 화륜선 고용의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怡良 등은 상유를 받은 지 약 20일만에⁴⁵⁾ 반대의 뜻을 개진하고 있다. 火輪船은 빠르기가 바람같아 진실로 外夷의 利器이므로 이를 고용하여 助剿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雇價가 비싸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양자강에 進入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을뿐더러, 설령 紳商의 헌금으로 화륜선을 고용한다 해도 夷人을 또한 고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빌미로 양자강 통상 주장을 다시 내세우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감히 주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다시 상유를 받고 상의해본 결과 우리의 快蟹船 등은 화륜선의 빠르기를 좇지 못하여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선박으로 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니 굳이 「借力外夷」하여 「要挾之端」을 열 필요가 없다고 하여 曾望顏의 奏請에 반대하고 있다.⁴⁶⁾

怡良 등은 火輪船 고용을 왜 반대했을까. 더구나 화륜선 고용 주장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라는 衆論을 의식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江浙 상인들이 사들인 화륜선 2척을 양자강에 투입하겠다 하여 화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은가. 怡良 등은 위 상유를 받기 얼마전에 영국 세무사 레이(H. N. Lay)의 영국砲船 구매 제안을 받고 있었다. 레이는 새로 만든 화륜선 포선이 성능이 우수하니 몇척을 사서 狂寇를 제거하라는 제안을 해 온 것이다. 怡良과 吉爾杭阿는 上奏에서 이 제안은 실상을 헤아리기 어려

43) 이에 대하여는 Wang, "China's Use," pp. 545~7; Teng, *Western Powers*, pp. 265~6 참조.

44) 〈怡良吉爾杭阿奏籌議火輪船肅清江面摺〉, 1856. 5. 14, 《吳煦檔》(1), pp. 6~7.

45) 上諭는 4월 11일(음 3. 7)로 되어 있어 당시 문서 왕복시간이 약 13.4일 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 계산이다.

46) 同上, pp. 7~8.

위 중국은 夷力을 빌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면서, 다만 그들이 교활하나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으니 매우 얇고 좁은 곳도 통과할 수 있다는 그 때에 임무를 맡기고자 하는 의향을 던지시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⁴⁷⁾ 그런데 위 상유를 받은 지 며칠 후에 이 奏摺에 대한 硃批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 화륜선 고용건은 재고하여 그들의 술책에 빠지지 말고 愚萌을 미리 막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⁴⁸⁾ 怡良 등의 奏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들이 화륜선 고용을 반대했던 까닭은 바로 이 硃批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吉爾杭阿는 전에도 조약개정 교섭에 응하여 「助剿」토록 하자 하여 엄한 질책을 받은 바 있었던 터였다. 이 시기는 江北大營이 격파되고 楊州가 함락되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夷船의 고용이나 구매에 반대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었다.

이후 1860년에 이르기까지는 특별한 「借兵助剿」 활동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1858년 말경 엘긴(Elgin)의 남경방문에 대해 그들과 太平軍과의 결함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흠차대신에 오른 和春이 영·미·불이 선전을 파견하여 漢口の 정세를 살피려 한다고 보고하면서 그들에게 다른 뜻이 있을까 두려워 水營鎮將에 密飭을 내려 적절한 시기에 화륜선을 파견하여 助剿해 주기를 원한다고 公言하도록 했다⁴⁹⁾고 한 점, 和春과 怡良의 사당 후 兩江總督에 오른 何桂清이 엘긴과 太平軍과의 접촉상황을 보고하면서 그들간에 결함의 뜻이 없는 것 같다⁵⁰⁾고 한 점 등이 주목될만 하다 할 것이다.

1850년대의 「借兵助剿」 활동은 吳健彰과 吉爾杭阿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고, 그 내용은 해군력을 차용하자는 것과 夷船을 고용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吉爾杭阿는 열강의 양자강유역 통상 허가를 중심으로 한 조약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借兵助剿」의 댓가를 얻자고 주장하므로써 조정의 문

47) 《始末》卷 13, 咸 6. 3. 12, No. 503, pp. 456~7; 《吳煦檔》(1), 1856. 4, p. 6.

48) 《始末》, 同上, p. 457; 《吳煦檔》(1), p. 7.

49) 《始末》, 卷 33, 咸 8. 11. 2, No. 1271, p. 1213.

50) 《始末》, 卷 36, 咸 9. 3. 12, No. 1435, pp. 1359~60.

책을 받고 있는데, 이점이 바로 이후 「借兵助剿」論을 주춤하게 한 요인이었다. 「借兵助剿」論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는 1860년을 기다려야 되었던 것이다.

II. 1860년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

1. 太平軍의 東進과 上海官紳의 危機意識

1860년 5월 5일(윤 3. 15) 和春의 江南大營이 케멸된 후 丹陽·常州·蘇州·昆山·太倉·嘉定·青浦·松江 등 上海를 제외한 江浙의 거의 전 지역이 약 2개월만에 太平軍에 점령됨으로써 이 지역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은 督撫의 上奏文 및 관료들의 서신속에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江南大營이 케멸되어 和春이 자결하고 江南提督 張國梁이 丹陽에서 전사한 후 軍心은 와해되어 주인 없는 7·8萬의 兵勇은 적을 보기만 하면 싸우지도 않고 潰散했으며, 이들을 수시로 재집결시켜도 모으면 곧 흩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장비와 軍餉은 모두 적의 수중에 들어갔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⁵¹⁾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패퇴한 潰兵은 賊을 쫓는 자가 수만이었다는 것이며, 賊을 앞장서서 인도하였으니 실로 叛亂(兵變)이라는 것이다.⁵²⁾ 杭州의 경우 潰散한 兵勇이 2·3만 몰려왔는데, 이들에 口糧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적에 죽지 않으면 이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浙江巡撫 王有齡은 위급한 정황을 전하면서, 蘇松太道 吳煦에게 상해에 있는 浙商에 은 10만량을 빌려줄 것을

51) 〈薛煥致吳煦藍蔚變函〉 및 〈何桂清致吳煦函〉, 1860. 5. 20, 《吳煦檔》(1), p. 219; 〈薛煥奏蘇省軍務情形片〉, 1860. 6, 《吳煦檔》(1), p. 15; 何桂清·王有齡의 奏, 〈檔案史料〉, 咸 10. 4. 24, 《第二次》(四) No. 45, pp. 377~9. 마지막 것은 다음 자료에도 실려 있다. 《始末》卷 52, 咸 10. 5. 8, No. 1979, pp. 1946~8; 《吳煦檔》(1), 1860. 6. 5(이는 편자의 명백한 오류임), pp. 10~13; 趙烈文輯, 〈上海會防局資料及其它〉, 《簡輯》(6), pp. 157~9. 〈吳煦致吳宗麟函〉, 1860. 8. 23, 《吳煦檔》(1), p. 396도 참조.

52) 〈薛煥奏蘇省軍務情形片〉, 1860. 6, 《吳煦檔》(1), p. 15; 〈平翰致吳煦函〉, 1860. 6, 《吳煦檔》(1), p. 252.

주선해달라 요청하고 있다.⁵³⁾ 요컨대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적에 투항하여 한자 軍餉만 소모할 뿐이라는 것이다.⁵⁴⁾ 마치 「山崩海傲」와 같이 몰려오는⁵⁵⁾ 이들 패잔 兵勇들은 難民과 함께 上海로도 하루에 수천 명씩 몰려들었는데,⁵⁶⁾ 이를 막기 위해 빈손으로 오는 자에게는 일인당 5 백錢을 주어 돌아가게까지 했으나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는 자가 적지 않은⁵⁷⁾ 상황이었다.

이런 정황하에서 省鄕의 주민들은 一특히 富民들은一 잇달아 이주하고 城부근은 모두 罷市되어 상품이 유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地漕는 물론 關稅와 釐捐도 전혀 건너지 않았고, 더우기 藩庫와 籌餉局의 銀이 敵의 수중에 넘어갔기 때문에 軍糧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것⁵⁸⁾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예컨대 上有齡은 수차에 걸쳐 上海의 吳煦에게 매월 3·40만 량이 필요한데 조달할 길이 없다면 軍餉의 결핍을 하소연하고 그 조달을 부탁하고 있다.⁵⁹⁾ 罷市 및 주민의 이주로 빚어진 또 다른 현상은 총포, 특히 화약의 구입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工匠들도 흩어져 총포나 화약을 제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⁶⁰⁾

이러한 혼란을 틈타 또하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土匪의 횡행이다. 官紳들의 보고중에는 그들의 약탈행위뿐만 아니라⁶¹⁾ 太平軍과의 결합을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많다.⁶²⁾ 그중에서도 특히 「廣匪」의 太平軍과

53) 〈王有齡致吳煦函〉, 1860. 6. 11, 《吳煦檔》(1), p. 245.

54) 〈吳煦上王夔齡稟〉, 1860. 10. 19, 《吳煦檔》(1), p. 436.

55) 〈王有齡致薛煥函〉, 1860. 5. 31, 《吳煦檔》(1), p. 229.

56) 〈吳煦上徐有壬稟〉, 1860. 5. 31, 《吳煦檔》(1), pp. 227~8.

57) 〈吳煦致吳雲函〉, 1860. 5. 31, 《吳煦檔》(1), p. 229.

58) 〈薛煥奏蘇省軍務情形片〉, 1860. 6, 《吳煦檔》(1), p. 15; 〈何桂清奏江浙軍務情形片〉, 1860. 6, 《吳煦檔》(1), pp. 15~6; 何桂清·王有齡의 奏, 〈檔案史料〉, 咸 10. 4. 24, 《第二次》(四), No. 45, pp. 378~9; 吳煦, 〈防守上海大略〉, 趙烈文, 〈上海會防局資料及其它〉, 《簡輯》(6), p. 171.

59) 예컨대 〈王有齡致吳煦函〉, 1860. 4. 1 및 1860. 5. 19, 《吳煦檔》(1), pp. 198~9 및 218~9, 및 주 53) 참조.

60) 〈吳煦上徐有壬稟〉, 1860. 5. 31, 《吳煦檔》(1), pp. 227~8.

61) 〈富安致吳煦函〉, 1860. 7, 《吳煦檔》(1), p. 322; 〈劉郁膏稟〉, 1860. 9. 6, 同, p. 408.

62) 〈薛煥致吳煦函〉, 1860. 7. 6, 《吳煦檔》(1), p. 285; 〈吳雲上吳煦稟〉, 1860. 7. 29, 同 p. 345; 〈薛煥致吳煦函〉, 1860. 7. 31, 同 p. 352.

의 결합 우려가 현저한데, 廣匪는 廣東·廣西지방에서 모집해온 廣勇이 潰散하면서 土匪가 된 자를 말한다. 薛煥에 의하면, 太平軍의 포로중에서 발견한 서류에 의하면 上海에 3천명의 廣匪(勇)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太平軍과 내통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며, 전에 蘇州城이 廣匪를 섬멸하자 성내가 안정이 되었고 鎮江大營이 廣勇을 제거하자 곧 鎮江을 수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확증이라는 것이다. 본래 廣勇이 이렇게 많게 된 연유는 전년 和春이 남경 수복에 급급하여 廣東에서 이들을 많이 모집했기 때문이며, 금년 江南大營이 케멸한 것도 반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투가 시작될 때 적을 소탕하지 못한 것도 衆勇중에 매번 通賊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그중 廣勇이 가장 심하다고 하고 있다.⁶³⁾ 그러기에 新陽縣 生員 王瀚이 廣勇은 우리가 쓰지 않으면 적에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招回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⁶⁴⁾ 薛煥은 이들을 쓰면 太平과 결합하여 「休兵」할 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행할 수 없다 하고 있는 것이다.⁶⁵⁾ 심지어 薛煥은 그 전에 夷인이 우리를 돕고 있다(혹은 도울 것이다)라는 말을 퍼트림으로써 廣勇을 두려워 하게 하여 다스리고 招募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까지 하고 있었다.⁶⁶⁾ 이러한 이들 土匪의 겁탈행위는 太平軍보다 두배에 이른다⁶⁷⁾고 할 정도로 그 폐해가 극심했던 것이다.

太平天國의 東進으로 빚어진 이러한 상황이 上海를 중심으로 한 官紳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했다. 예컨대 王有齡은 浙江이 보존될 수 없으면 江西·福建도 위태로울 것이며, 杭州도 회복할 가망이 없다면서 「放聲大哭」할 수밖에 없었고,⁶⁸⁾ 이제는 운명을 하늘에 맡

63) 〈薛煥奏裁汰廣勇片〉, 1860. 7. 28, 《吳煦檔》(1), pp. 22~3; 〈薛煥奏太平軍攻占青浦松江進軍上海摺〉, 1860. 8. 15, 同, p. 25 및 〈王瀚呈「賊情略論」〉, 1860. 7, 同, p. 30 참조.

64) 〈王瀚上書吳煦略陳管見〉, 1860. 7, 《吳煦檔》(1), p. 307.

65) 〈薛煥致吳煦函〉, 1860. 7. 15, 《吳煦檔》(1), p. 315.

66) 〈薛煥致吳煦函〉, 1860. 5. 25, 《吳煦檔》(1), pp. 221~2. 夷인이 「助剿」한다는 허위선전 방식은 民團을 격려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吳煦札吳雲赴蘇州各鄉激勸民團偵探軍情〉, 1860. 6. 13, 同 p. 249 참조.

67) 〈費壽康致吳煦函〉, 1860. 6. 20, 《吳煦檔》(1), p. 255.

68) 〈王有齡致吳煦函〉, 1860. 6. 11 및 6. 16, 《吳煦檔》(1), p. 244 및 251.

길 수밖에 없는⁶⁹⁾ 절망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上海가 공격을 받을 때는 「呼吸存亡之際」로 인식된 것이다.⁷⁰⁾

「東南의 반쪽이 이미 와해된」⁷¹⁾ 이러한 大變局의 절망속에서 上海를 중심으로 한 官紳들에게 그래도 한가닥 남아 있었던 희망은 曾國藩의 湘軍이 조속히 와서 구원해주는 것이었다. 가령 太平軍이 蘇州를 점령한 6월 2일 王有齡은 이제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 曾이 蕪湖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다 하고 있으며,⁷²⁾ 薛煥도 太平軍이 青浦·松江으로 진군하여 上海가 三面이 적에 둘러싸여 있는 정황을 알려면서, 자신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曾軍과 瑞昌軍을 속히 오도록 해 달라고 주청하고 있다. 만약 曾國藩軍이 속히 도착하지 않으면 이후는 어떻게 될지 自明하다는 것이다.⁷³⁾ 9월에 金壇의 실패를 전하면서도 그는 曾國藩은 江南士民의 「再生之望」이라 하며 재촉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曾國藩의 湘軍이 도착할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上海官紳에게 이제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列強의 힘을 비는 길뿐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속에서 이른바 「借兵助剿」論이 제기된 것이다. (夷人의) 신문 지상에 영불 양국에 上海縣城을 바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⁷⁵⁾도 이러한 상황의 단적인 반영이라 할 것이다.

2.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

1860년 초의 상해는 지난해 大沽에서의 패전에 대한 보복을 위해 영불

69) 주 72) 참조.

70) 〈閩劍上吳煦稟〉, 1860. 8. 19, 《吳煦檔》(1), p. 387.

71) 〈吳煦上何桂清稟〉, 1860. 6. 5, 《吳煦檔》(1), p. 237.

72) 〈王有齡致吳煦函〉, 1860. 6. 2, 《吳煦檔》(1), pp. 231~2. 王有齡은 이미 5월 11일에 曾國藩으로 하여 蕪湖를 공격할 것을 奏請하여 지시했다는 硃批를 받고 있다. 〈王有齡致吳煦函〉, 1860. 6. 3, 同, p. 232.

73) 〈薛煥奏太平軍攻占青浦松江進軍上海摺〉, 1860. 8. 15, 《吳煦檔》(1), p. 26. 및 〈薛煥奏占領松江并進攻青浦摺〉, 1860. 7. 16, 同, p. 22도 참조.

74) 〈薛煥奏金壇失守及東路緊急摺〉, 1860. 9. 22, 《吳煦檔》(1), p. 30. 그밖에 〈黃芳致吳煦函〉, 1860. 6. 15, 同, p. 250도 참조.

75) 〈佚名書信〉, 1860. 6, 《吳煦檔》(1), p. 239.

군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上海官紳⁷⁶⁾은 태평천국의 동진으로 야기된 위기의식에다 이들 열강의 북상 위협 및 북상을 어떻게든 저지하라는 조정의 지시에 대처해야만 되는 兩難에 처해 있었다.⁷⁷⁾ 이 兩難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방안이 上海官紳들에게는 바로 영불당국으로부터 군사력을 빌어 太平軍을 초멸하자는 「借兵助剿」論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借兵助剿」論은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적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빌다는 역설적인 구상의 논리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먼저 「借兵助剿」해야 된다는 상주를 올린 것은 6월 13일(음 4월 24일) 兩江總督 何桂清과 浙江巡撫 王有齡이었다. 이때는 이미 常州·無錫·蘇州가 함락된 이후였다. 何 등은 江南大營이 체멸한 이후의 군사정황, 軍餉의 결핍상황, 土匪의 횡행 등 위급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江蘇巡撫 徐有壬이 蘇州가 위급할 때 蘇州布政使 薛煥, 蘇松太道 吳煦 등에 급히 연락하여 영불 양국의 夷兵에 구원을 요청하도록 했다는 것, 또한 徐는 紳士 韓崇 등의 連名 탄원서를 받아 蘇州府知府 吳雲에 전달하여 上海에 가서 속히 처리토록 했다는 것, 자신은 6월 6일 상해에 도착하여 브루스(Bruce)와 접견⁷⁸⁾하고 북상을 저지하며 하였으나 브루스는 「進京換約」을 고집하면서 자기로서는 蘇州 방어를 간절히 돕고 싶지만 영국이 군사를 움직인 것은 (大沽敗戰의) 설욕을 위한 것이니 먼저 助剿한다면 국왕에 회답할 수 없다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太平軍과 결합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취해야 할 계획은 오로지 속히 「安撫夷人」하여 그들의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들어줌으로써 (太平軍과의) 「勾結之心」을 끊고 「助順剿賊」토록 권하는 길뿐이니, 그럼으로써 南北의 위

76)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上海官紳」이란 용어는 上海의 官紳들에 국한하지 않고 江浙지방의 官紳을 포함한 의미로 쓰고자 한다. 그것은 「借兵助剿」論의 제기 와 활동이 上海를 중심점으로 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77) 上海官紳(商)의 北上저지 활동에 대해서는 拙稿, 〈1860年 英佛聯合軍에 대한 清朝의 對應—파아크스의 拘禁事件과 恭親王—〉, 《釜山史學》10, p. 36 참조.

78) 이 부분은 “清朝의 臣下된 자로 이러한 자가 있었는가. 너를 사형에 처해도 부끄러우니 (짐이) 어떻게 臣民을 대하겠는가”라는 硃批를 받고 있다. 〈檔案史料〉, 咸 10. 4. 24, 《第二次》(四), No. 45, p. 378.

기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후환이 크고 천하의 죄인이 될 것임을 알지만 그들이 北上하게 된다면 더욱 소요가 일어날까 두렵다는 것이다. 더우기 自古로 國統이 唐을 도운 일이 있고, 대저 두 가지 해로운 일이 있으면 그중 해가 가벼운 것을 택해야 되는 법이며, 天津和約도 본래 諭旨를 받고 허락했을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이 요구하는(大沽戰에 대한 중국의 파오 인정, 배상금 지불 등의) 네가지 조건도 받은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며 배상금件도 그들이 대신 剿賊할 수 있다면 이는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⁷⁹⁾

요컨대 何와 王의 奏請 내용은 南北兩畔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和議 조건을 허락함으로써 助剿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주장의 바탕에 깔린 논리는 自古로 外夷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과 太平軍의 해보다는 (화의요구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생기는) 外夷의 해가 가볍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후자의 논리는 얼마후 북경이 점령되므로써 그들의 논리가 옳았음이 반증되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정의 반응은 夷力을 빈다면 그들로 하여금 중국을 경시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후환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엄히 질책하는 것이었다.⁸⁰⁾ 何桂清은 같은 6월에 비슷한 내용의 奏를 작성하고 있다. 「撫夷」와 「剿賊」을 요청하는 것은 눈앞에 와 있는 巨患을 막자는 것이니, 자신의 본뜻도 바로 이 北畔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것이며, 이는 「國體」에 어긋나지도 않고 「萬不得已」하여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何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江浙의 官紳商民 모두가 「撫夷剿賊」을 當世의 急務로 생각하고 있고 이 길 밖에는 수습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薛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蘇省 紳士 韓崇 등도 連名으로 薛煥에 요청

79) 同上, pp.376~9; 《吳煦檔》(1), pp.10~13(6.5일로 되어 있는 것은 편자의 오류임); 《始末》卷 52, 咸 10.5.8, No.1979, pp.1946~48; 趙烈文輯, 《上海會防局資料及其它》, 《簡輯》(6), pp.157~9.

80) 《檔案史料》, 咸 10.5.8, 《第二次》(四), No.57, pp.398~9; 《始末》卷 52, 咸 10.5.8, No.1980~1, pp.1948~9; 趙烈文, 《上海會防局資料及其它》, 《簡輯》(6), p161.

해 왔다는 것이다.⁸¹⁾

이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何桂淸은 「借兵助剿」의 요구가 紳士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江蘇巡撫 徐有壬(혹은 浙江巡撫 王有齡과 蘇松太道 吳煦도 포함하여)⁸²⁾이 주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전에 吉爾杭阿가 문책당한 전례에 비추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임에는 분명한데, 과연 그 실상은 어떠한가. 단순히 책임회피 의도로만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何는 6월 5일 자신이 上海로 가는 연유를 보고하고 있는데, 吳煦가 보내온 稟에 의하면 徐有壬이 蘇州 紳士 韓崇 등의 요청에 따라 영불에 照會를 보내 蘇州 방어를 요청했는데, 該酋는 五口(通商)大臣인 何桂淸이 상해로 와야만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徐로부터 「助順」辦理를 명령받은 吳煦가 자신에게 輪船을 파견해와 上海로 오도록 했다는 것이다.⁸³⁾ 이에 대한 硃批는 「借用夷兵」을 빌미로 교묘하게 적을 도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 문책하고 있고, 同日의 다른 上諭는 「助剿」不可함을 말하면서 徐有壬은 이미 죽었으니 이 일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음을 薛煥이 영불에 告知토록 지시하고 있다.⁸⁴⁾ 과연 何桂淸은 도피하기 위해 상해로 갔다고 할 수 있을까.⁸⁵⁾ 물론 何는 江南

81) 《吳煦檔》(1), 1960, p. 14; 趙烈文, 〈會防局資料〉, 《簡輯》(6), p. 160. 이 奏와 6월 13일자 奏의 선후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何가 上海로 와서 薛煥과 매일 상의했다는 점으로 보아 상해도착[여기에는 (4월) 7일(양력 5월 27일)로 되어 있으나 17일(양력 6월 6일)의 잘못일 것이다. 郭廷以, 《太平天國史事日誌》, 臺北, 1976(三版), p. 680에도 5월 27일 상해도착으로 보고 있으나, 오류일 것이다.] 이후 며칠 지나 작성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王有齡은 吳煦로부터 6월 17일(음 4. 28) 奏稿를 받고 “구구절절하다. 만약 文義에 구어되어 文章을 부연한다면 이는 「誤國家」다”라고 한 후, 읽은 후에 何에 보내겠다 하고 있는데(《王有齡致吳煦函》, 1860. 6. 18, 《吳煦檔》(1), p. 251), 이는 아마도 이 奏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이 奏에는 너무기 王과 吳의 書信을 동봉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吳는 何로부터 「助剿」요구 奏講에 관한 奏稿의 작성을 위임받고 있었다(주 100 참조). 이 추론이 맞다면 이 奏의 날짜는 6월 17일 이후 약 3, 4일 경일 것이다.

82) 주 81) 참조.

83) 《補遺》, 咸 10. 5. 1, 《第二次》(二), pp. 200~1. 奏摺일은 〈檔案史料〉, 咸 10. 4. 24, 《第二次》(四), No. 45, p. 377 何의 奏속에 나와 있다.

84) 《始末》卷 52, 咸 10. 5. 1, No. 1969, p. 1933. 徐는 蘇州 함락시 자살하고 있다.

85) Wang, “China’s Use,” p. 554에서도 도피로 간주하고 있다. Wang은 또한 何가 이 上奏文이 도착한 후 파면되었다고 하는데(p. 554), 그가 파면된 것은 이 上奏文이 도착한 6월 19일(음 5. 1)보다 앞선 6월 8일(음 4. 19)의 일이었다(주 86 참조).

大營 함락시 和春의 구원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丹陽 함락후 軍事는 和春에 맡기고 자신은 蘇州에서 籌餉을 맡겼다는 奏를 올리고 常州에서 蘇州로 떠남으로써 徐有壬의 탄핵을 받고 있다. 이로써 何는 總督의 지위를 박탈당하니, 그것은 「借兵助剿」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守城하지 못하고 도피했다는 이유 때문이며, 후일 京師로 압송된 후 曾國藩의 覆奏도 이 점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⁸⁶⁾ 이렇게 보면 何는 戰守에 자신이 없어 퇴각한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가 그후 上海로 간 목적이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그리고 앞에 언급한 책임 회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과 輿論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上海官紳들의 「借兵助剿」論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江南大營 케멸후 얼마 안되어서부터였는데, 제일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借兵助剿」論을 제기한 사람은 浙江巡撫 王有齡이었다. 王有齡은 吳煦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서 何桂清에게 보낸 서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에 變亂을 구할 수 있는 길은 奏를 올릴 때 ‘그들이 「助順剿逆」하기를 원하고 전대로 和議하기를 구하니 이미 막을 수가 없다’고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何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회답이 없다는 것이다.⁸⁷⁾ 王有齡은 이 變亂을 구하기 위해서는 「借兵助剿」의 길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和議요구를 수락해야 한다면 何가 奏請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王은 동시에 上海의 吳煦에게 영불당국에 한편으로는 전의 和議를 허락할 것을 주장하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즉시 양자강으로 나아가 剿賊할 것을 요청하라

86) 이상의 사정에 대하여는 《清史稿》〈列傳〉184, 5a~b; 清史編委會編, 《清代人物傳稿》下編, 第1卷(遼寧人民, 1984), pp. 50~1 참조. 何가 常州에서 蘇州로 퇴각한 것은 糧臺 查文經, 布政使 薛煥 등의 요청에 따랐다는 것인데, 曾國藩은 「疆吏以城守爲大節, 不宜以僚屬爲進止」라 하여 何의 변명을 일축하고 있다. 徐有壬은 何가 蘇州로 퇴각해 왔을 때 청문을 달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주 함락시에도 다시 何를 탄핵하는 疏를 남기고 자살했다 한다. 祁寯藻 등 17명, 그리고 王有齡·薛煥 등은 何의 救命운동을 벌였으나 曾國藩의 覆奏로 同治元年 겨울에 棄市되고 있다.

87) 《王有齡致吳煦函》, 1860, 5. 12, 《吳煦檔》(1), p. 214.

고 하면서, 그러나 주를 올릴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다. 何桂濤에 두 번이나 편지를 올려도 답신이 없다는 것이다.⁸⁸⁾ 王은 丹陽이 함락된 소식을 듣고 나서도 蘇州의 방어가 우려된다면서 「救急良方」은 「僭夷」 한 가지밖에 없는데 蘇州·常州(徐有壬·何桂濤를 지칭)에 그런 의사가 있는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王은 何에 다시 이 뜻을 전하겠지만 吳煦도 영불당국에 “蘇常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들도 通商이 편리할 것”임을 말하고, “하물며 남의 환난이 급하면 (구원)요청해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 법”이라고 하여 설득하라는 것이다.⁸⁹⁾ 요컨대 王은 한편으로는 何에게 奏請할 것을, 한편으로는 吳煦에게 즉시 열강에 「助剿」를 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蘇常이 위급한 이 시기에 조속한 「借兵」의 길만이 유일한 구급책이고 「極上妙策」⁹⁰⁾이니 後患의 有無는 이 시각에 따질 겨를도 없다⁹¹⁾는 것이다. 王은 일이 평정된 후에는 자신이 죄를 쓰겠다고 하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王의 이러한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何桂濤은 奏請하기를 몹시 꺼리고 있었던 것이다.

王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借兵助剿」論을 펴고 실질적으로 영불당국과 교섭을 담당한자는 蘇松太道 吳煦였다. 江南大營이 케멸된 후 吳煦도 何桂濤에 올린 稟에서 열강의 兵船으로 南京을 탈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데 가지 조건을 들어주도록 上奏해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영불이 北上하는 뜻은 데 가지 요구조건을 얻으려는 데 불과하다며, (助剿하게 된다면) 배상금의 지불도 東南大局을 救全하기 위해 배운 셈이 되니 군사력으로 위협하여 勒索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고, 「國體」도 손상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뜻이 通商과 체면유지에 있지 결코 土地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면서 만약 저절히 타결된다면 南北이 모두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니 「一舉兩得」이라 하고 있다. 吳는 여기에 덧붙

88) 〈王有齡致吳煦函〉, 1860. 5. 15, 《吳煦檔》(1), p. 217.

89) 〈王有齡致吳煦函〉, 1860. 5. 23, 《吳煦檔》(1), p. 220.

90) 〈王有齡致吳煦函〉, 1860. 5. 25, 《吳煦檔》(1), p. 221.

91) 同上 註 89).

92) 同上 註 90).

붙여 回紇이 唐을 도왔고 契丹이 宋과 和議한 예를 들면서 古人들도 「부득이」할 때는 夷狄으로부터 힘을 빌었다는 것이다. 지금 東南의 위기가 이루어 말할 수 없고 北쪽에도 邊岫이 있어 「非常之變」이니 반드시 「非常之策」으로 응해야 하는바, 비유컨대 病이 위독하여 不治에 이르렀을 때는 부득이 毒藥을 써서라도 回生시켜야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吳는 이것은 「下下之策」이라서 감히 瀆陳할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도 何에게 密摺으로 請旨할 것을 바라고 있다.⁹³⁾ 그러나 何는 이때도 반응을 보이지 않은 듯하다. 常州의 함락소식을 듣고 王有齡에 올린 稟에서 吳는 夷人和 상의하여 上海의 공동방어를 허락받았다면서 혹자는 이것이 「體制」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하고, 장래 후환이 일어 죄를 얻는다 해도 나 혼자 맡겠다 하고 있다.⁹⁴⁾ 吳는 나아가 진 함으로 南京을 공격하고 水陸兵으로 蘇州 일대로 진격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上奏를 누가 맡아야 할지 蘇州府知府 吳雲 이외는 蘇州人은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吳는 새로운 계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寧滬의 상인으로 하여금 눈앞의 潰敗 정형과 江浙이 이미 보전될 수 없음을 말하는 公稟을 올리게 하여, 이로써 衆商의 간청에 따라 「借兵助剿」를 청한 것이라 奏請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吳는 만약 何桂清 등이 주청하지 않으면 王有齡이 轉奏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있다.⁹⁵⁾ 그러나 王도 何가 (상인의) 公稟방식이 잘못이라 한다고 하

93) 〈又稟何官保〉, 趙烈文輯, 〈上海會防局資料及其它〉, 《簡輯》(6), pp. 151~2. 여기에는 吳煦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에 나온 자료들이 내용상 吳煦의 것임이 분명하며,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가령 영불군이 山海關으로 登岸한다든가 하는 探聞 내용은 〈檔案史料〉, 咸 10. 3. 30, 《第二次》(四), No. 35, p. 352에 나오는 吳煦의 探聞 내용과 같은 점으로 보아, 또한 上海縣令(劉郁膏)과 상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吳煦의 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날짜는 내용상 常州가 함락되는 5월 22일 이전의 것이다.

94) 吳煦는 이 해 초에 華商과 洋商을 통해 夷船이 北上하지 못하도록 和約條件을 만들 당시에도 和議를 맺은 宋의 寇準이 처음엔 칭송을 받았으나, 일이 평정된 후에는 城下之盟을 수지로 여겨 罪人이 되고 말았으며, 이 일로 罪가 자신한테 미칠 것이지만 나 한 몸의 영욕은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으나 國家의 安危가 달린 일이므로 매우 중대한 것이라 하고 있다. 趙烈文輯, 〈上海會防局資料及其它〉, 《簡輯》(6), pp. 145~7 참조.

95) 〈吳煦上王有齡稟〉, 1860. 5. 26, 《吳煦檔》(1), pp. 223~4.

면서 “내가 만약 蘇州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결코 없었을 텐데”라고 하므로써⁹⁶⁾ 吳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섣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吳의 제안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를 쓰겠다 했으면서도 막상 上奏할 것을 요청하니 何의 반대라 하여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판료계의 「保身」에 대한 일 단면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江蘇巡撫 徐有壬의 명으로 夷務를 맡기 위해 당시 上海에 와 있던 江蘇布政使 蔣煥도 앞장서려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吳煦는 蘇州府知府 吳雲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 쟁점에서 借夷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奏를 올리려 하지 않음을 탄식하면서, 다시 江浙商民의 公稟 형식을 빌어 그들이 이 지방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借夷兵剿賊」을 원하기 때문이라 하여 江浙 양 순무에게 會奏하기를 請했으면 한다고 하고 있다. 「衆人」의 소망에서 나온 것인 이상 분수를 넘는 행위가 아니므로 황제도 또한 허물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남북 兵衅을 없애는 「一舉兩得」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⁹⁷⁾ 吳煦는 이제 王有齡과 徐有壬 두 순무에게 商民의 公稟 형식을 빌 轉奏를 요청한 것이다.⁹⁸⁾

요컨대 吳煦의 「借兵助剿」論은 「借夷」의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로서 그들의 네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줌으로써 일거양득이 된다는 것, 이것은 영불의 복상 이후 초래될 후환과 비교해 볼 때 훨씬 가벼운 것으로 「國體」의 손상이 아니라는 것, 回紇이 唐을 도운 일이 있고 宋代에는 夷狄과 和議도 맺은 전례가 있다는 것, 현재의 「非常之變」은 「非常之策」으로 응해야 되니 「毒藥」을 써서라도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何桂清의 上奏文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吳煦는 商人的 公稟 형식으로 轉奏하라

96) <王有齡致吳煦函>, 1860. 5. 30, 《吳煦檔》(1), p. 226.

97) <吳煦致吳雲函>, 1860. 5. 31, 《吳煦檔》(1), p. 230.

98) <王有齡致吳煦函>, 1860. 6. 3, 《吳煦檔》(1), p. 232에 의하면 “徐有壬이 나와 聯銜으로 助順奏請하고자 한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늦었지만 (길이)뚫겨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吳의 이 제안에 양인은 이제 호응할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何의 奏文 속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保身」을 위해 아무도 上奏하려 하지 않자 「焦跳欲絕」⁹⁹⁾하던 吳는 何·王·徐 등 督撫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도피구를 만들어 줌으로써 어떻게든 「借兵助剿」를 성사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王과 吳 등의 官紳으로부터 압력을 받고있던 何는 마침내 王有齡을 통해 吳煦의 제안을 수락하고 吳와 薛煥에게 草稿를 작성토록 위임하여 속히 보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⁰⁾ 6월에 올린 何桂淸의 借兵을 요청하는 두 上奏文은 吳煦의 書信과 그가 작성한 奏稿에 근거하여 올려진 것이었고 그중 하나는(6월 13일자) 王有齡과 함께 올리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¹⁰¹⁾ 말하자면 何의 「借兵助剿」를 요청하는 奏는 上海官紳의 「衆論」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商人의 公稟 형식이 吳煦의 제책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借兵助剿」論은 실제로 紳商의 간청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며 「衆議」가 같았다고 볼 수 있다.¹⁰²⁾ 吳煦·王有齡 외에도 何를 탄핵한 徐有壬도 蘇州 구원을 위해 蘇州府知府 吳雲을 上海에 파견하는 등 「借兵」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吳雲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결코 人心을 진작시킬 수 없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¹⁰³⁾ 일찌기 趙炳麟(신사?)도 논자들은 「借兵」論이 「引虎入門」이라 하지만 이는 豺狼이 이미 집안에 가득찬 것을 모르는 것

99) 同上 註 97).

100) <王有齡致吳煦函>, 1860. 6. 1, 《吳煦檔》(1), pp.230~1.

101) 주 93) 및 주 81) 참조. <王有齡致吳煦函>, 1860. 6.16, 《吳煦檔》(1), pp. 250~1에서 王은 이미 주접을 올렸다고 하면서 何가 (吳煦의?) 書信을 읽은 후 곧바로 代呈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13일자의 奏를 의미할 것이다. Bruce 에 의하면 13일자 奏를 올리기 전에 何桂淸·薛煥·吳煦 사이에 긴 토론이 있었는데, 薛이 上奏하기를 거부하므로써 王有齡과 合奏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 하고 있다. Bruce to Russell, No.124, 1860. 6.12 및 1860. 6.26, F.O. 17/338; Bruce to Russell, 1860. 6.29, pp: *Affairs in China*, p.71. Banno, *China and West: 1858~1861, The Origins of the Tsungli Yamen* (Harvard Univ. Press, 1964), pp.262~3. 주 129 所引.

102) <佚名書信>, 1860 6, 《吳煦檔》(1), p.239; 吳煦, <防守上海大略>, 趙烈文輯, <上海會防局資料及其它>, 《簡輯》(6), p.171.

103) <吳雲致吳煦函>, 1860. 6, 《吳煦檔》(1), p.238; <吳雲復吳煦函>, 1860. 6.10, 同, pp.242~3.

이니, 毒을 빌려 毒을 공격하지 않고 病이 나서 곧 죽게 될 것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目前的 위급함을 구한 후 서서히 완치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있다.¹⁰⁴⁾ 이렇듯 何의 奏는 上海官紳의 「衆論」을 조정에 대변하는 것이었지 何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¹⁰⁵⁾

何桂清이 上海에 가는 연유도 이러한 「衆論」의 배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吳煦는 6월 5일 何에 올리는 稟에서 王有齡, 徐有任의 「借兵」교섭 요청에 따라 갖은 노력으로 夷酋와 상의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은 “「助剿」할 수 있지만 何가 各國通商事務를 전담하는데 왜 한마디도 없느냐”며 何가 이곳에 와 상의해야 정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吳는 「和夷剿賊」만이 유일한 「救急之法」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이미 「助剿」할 수 있다 했으니,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두번 다시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군은 이미 복상했고 프랑스군도 수일내에 복상한다 하니 반드시 신속하게 定議해야만 이미 출발한 자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고, 출발하지 않은 자는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하고 귀찮다 해도 친히 왕립하여 상의해야 하며 그밖의 번다른 方策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吳는 何에게 小輪船을 灤河로 파견하고 있다.¹⁰⁶⁾ 이것은 何의 6월 5일자 奏摺¹⁰⁷⁾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何의 上海행은 도피를 위한 거짓병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열강으로부터 상해 공동방어는 약속을 받았지만 남경 소주지방에의 「助剿」는 아직 허락받지 못한 상황에서 兩江總督 何의 상해도착은 上海官紳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다.

何桂清은 상해에 도착한 직후부터 蔣煥과 함께 브루스 등과 교섭접촉을

104) <趙炳麟上吳煦稟>, 1860. 5. 14, 《吳煦檔》(1), p. 214. 兩淮鹽運使 喬松年도 太平軍 진압이 급선무라면서 天津조약 원안대로 和議를 맺고 「借兵」하자고 상주하고 있다(《始末》卷 51, 咸 10. 4. 29, No. 1968, p. 1932).

105) 물론 何의 奏에서 徐有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徐가 蘇州로 퇴각할 때 何를 받아들이지 않은 감정 탓일 수도 있다. 다만 徐의 탄핵으로 파면되는 날짜가 6월 8일이니, 이 上諭를 받는 것은 6월 20일 이후일 것이다.

106) <吳煦上何桂清稟>, 1860. 6. 5, 《吳煦檔》(1), pp. 236~7.

107) 주 83) 참조.

별이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¹⁰⁸⁾ 당시 영불당국은 北上을 준비중에 있었기 때문에 蘇州 등지에 나아가 太平軍을 공격할 입장이 아니었다. 王有齡 등 官紳이 何의 교섭결과에 무척 기대를 걸고 있었음에도¹⁰⁹⁾ 불구하고 이제 上海官紳들은 「借兵」의 가망성이 없자 呂宋人을 중심으로 한 워드(F.G. Ward)의 洋槍隊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¹¹⁰⁾ 이후 太平軍이 上海를 공격하는 8월 중순까지는 따라서 「借兵助剿」論이 주춤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상과 같은 요인에다 何桂清의 파면과 경사암송의 상유가 도착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¹¹¹⁾

108) <檔案史料>, 咸 10. 4. 24, 《第二次》(四), No. 46, pp. 380~1; 《始末》卷 52, 咸 10. 5. 8, No. 1978, pp. 1944~5; Maybon, <上海租界史>, 《江浙豫皖太平天國史料選編》, pp. 422~3. 소주합락 이전 프랑스의 몽포방(Montauban) 장군만이 영불연합군으로 소주방어를 주장했으나 Gros와 Bruce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한다(p. 424).

109) <王有齡致吳煦函>, 1860. 6. 11, 6. 12, 《吳煦檔》(1), pp. 245, 246.

110) 呂宋人은 도망가는 자도 많았지만<楊坊致吳煦函>, 1860. 6. 24, 《吳煦檔》(1), p. 258) 이들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았다. 예컨대 薛煥은 嘉定에 있는 賊兵이 南翔에 오지 못하는 것은 夷人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薛煥致吳煦函>, 1860. 6. 24, 同, p. 259. 同, 1860. 6. 23, p. 257도 참조). 王翰도 太平軍 진압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군대통솔자를 外國武官으로 써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借兵少而收功廣」이라 하고 있는 것은<王翰上書吳煦略陳管見>, 1860. 7. 同, p. 309), 당시 워드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薛煥(당시 署理欽差大臣·暫署兩江總督·江蘇巡撫)의 이들 呂宋夷勇의 보고에 대한 清朝의 반응은 처음엔 괴물러 보내라고 했다가<檔案史料>, 咸 10. 5. 15, 《第二次》(四), No. 64, p. 406) 얼마후에는 「官雇」가 아닌 「商雇」로 하여 빌미를 주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檔案史料>, 咸 10. 5. 23, 同, No. 70, p. 417). 薛煥은 呂宋夷勇만 얘기했지 워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이 주목된다. 브루스는 Lay를 통해 그들 나라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판을 쓰는 것은 자기들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해산을 종용하고 있고 청조도 이를 승인하고 있다<始末>卷 54, 咸 10. 6. 4, No. 2041, p. 2023; <薛煥致吳煦函>, 1860. 8. 24, 《吳煦檔》(1), pp. 399~400 참조).

111) 何의 처분에 대해 가장 동정을 보이고 있는 자는 王有齡이었다. 王은 “지나치게 억울하다”<王有齡致吳煦函>, 1860. 6. 27, 《吳煦檔》(1), p. 264), “徐有壬이 何를 엄하게 규탄했다는데 그는 진실로 그런 규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同, 1860. 7. 7, p. 286), “...心血을 기울여 辦事한 자로...州縣을 회복하면 그 功은 何에 돌려야 할 것”(同, 1860. 7. 2, pp. 273~4), “「喪師失地」는 군사지휘자도 만회할 방법이 없었거늘 文官이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감히 억울함을 말할 못하고 恨만을 품을 뿐이다”(同, 1860. 7. 10, p. 290) 등은 그 단적인 예이다. 王은 또 吳煦에게 薛煥으로 하여금 증제할 것을 권하도록 하고 있고(同上, p. 290), 何의 암송을 잠시 늦춰달라는 奏를 올리고 있다(同, 1860. 7. 15, p. 316). 8월 중순경엔 浙江 兵勇의 「督剿逆匪」하여 潰散의 허물을 속되하게 해달라는 稟에 의거 薛煥이 代奏하기도 했는데 何는 면직된 후 수차 嚴旨를 받았으나 北行하지 않고 수개월간 배위에서 표류하고 있었다<吳煦上王夢齡稟>, 1860. 10. 19, 同, p. 436).

太平軍의 상해 공격이 시작되는 8월 중순경부터 재등장하는 「借兵助剿」論은 이미 영불의 공동방어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¹¹²⁾ 전과 같이 조정의 허가를 얻기 위한 논리상의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¹¹³⁾ 단지 “西門의 賊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外援을 믿기 때문”이라든지, “洋涇濱은 該夷가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어찌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등의¹¹⁴⁾ 夷兵에 대한 믿음과 신뢰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太平軍이 물리간 후에는 그들이 아니었으면 적의 수중에 떨어졌을 것이라 하여 상해방어의 공을 전적으로 그들에 돌리고 있다.¹¹⁵⁾ 아울러 薛煥은 奏摺에서 영불의 상해방위 가담을 보고하면서, 비록 그들은 본래 자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助順去逆」의 뜻은 가당한 것¹¹⁶⁾이라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紳士들이 「西兵」의 출격을 요구함과 함께 火器를 教練시킬 수십명 규모의 西兵을 鄉村에 상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신뢰심에서 연유된다 할 것이다. 가령 新陽縣 生員 王瀚은 “外援이 없으면 各勇은 사기를 높일 수 없다”¹¹⁷⁾든지 天津撫局이 정해지면 西兵이 돌아오는 자가 많을 것이니 그들을 출격시킬 수 있을 것이고, 10여명의 西兵을 諸翟에 상주시켜 鄉勇을 훈련시킴으로써 유사시엔 그들이 훈련받은 鄉勇을 이끌고 앞서 공격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 하고

112) 영국은 8월 22일 太平軍에 상해성은 영불군이 방어하고 있고 洋涇濱은 洋商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해오면 南京까지 공격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다(〈吳煦致吳宗麟函〉, 1860. 8. 23, 《吳煦檔》(1), p. 396). 당시는 영불군이 出城하여 蘇州로 진격한다는 說이 있었고(〈楊坊致吳煦函〉, 1860. 8. 21, 同, p. 391), 寧波 夷兵 칠명이 온다는 소문(〈王有齡致吳煦函〉, 1860. 8, 同, p. 388) 등이 있었다 한다.

113) 예컨대 「呼吸存亡之祭」에 不得不 夷力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도이다(〈閔劍上吳煦稟〉, 1860. 8. 19, 《吳煦檔》(1), p. 387; 〈王有齡致吳煦函〉, 1860. 8, 同, p. 388도 참조.

114) 〈楊坊致吳煦函〉, 1860. 8. 21, 《吳煦檔》(1), p. 391. 〈吳煦致吳宗麟函〉, 1860. 8. 23, 同, p. 395.

115) 吳煦, 〈防守上海大略〉, 趙烈文輯, 〈上海會防局資料及其它〉, 《簡輯》(6), p. 172; 〈吳煦上王有齡稟〉, 1860. 10, 《吳煦檔》(1), p. 428; 〈王有齡致吳煦函〉, 1860. 9. 22, 同, p. 421; 〈吳煦上王夢齡稟〉, 1860. 10. 19, 同, p. 435.

116) 《吳煦檔》(1), pp. 27~8, 薛煥의 奏(1860. 8) 및 《始末》卷 59, 咸 10. 7. 18, No. 2244, p. 2205. 상해방어 정황에 대해서는 馮桂芬, 〈上海守城記〉, 《顯志堂稿》卷 4, 14a~b 참조.

117) 〈王瀚上吳煦稟〉, 1860. 9. 8, 《吳煦檔》(1), p. 410.

있다.¹¹⁸⁾ 또 諸翟의 團董 貢生 袁熙贊은 諸翟의 團董들이 城으로 물려와, 西兵을 倂하여 助剿토록 하고 3·40명을 鄉村에 주둔시켜 火器를 教練하도록 吳煦에게 요청하는 稟을 보내왔다면서, 일단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돌려보냈으나 다시 찾아와 吳煦와 영불 공사에게 요청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하고 있다. 만약 廷議가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夷人은 吾民의 요청임을 구실로 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吳煦에 영불공사와 상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¹¹⁹⁾

이상에서 上海官紳들이 上海의 방어과정을 통하여 열강에 대한 「助剿」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은 북쪽의 화의 교섭과정과 북경합락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들의 「借兵助剿」論이 기본적으로 열강의 화의조건을 수락하라는 데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天津和議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들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賊을 제어할 것”¹²⁰⁾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뀔에 따라 그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 가령 吳煦는 전에 夷兵이 「效順」하여 우리의 한 쪽 팔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북쪽 事變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확실 하다.¹²¹⁾ 고 하고 있고, 파아크스가 구금된 소식을 듣고 나서는 星使(載垣을 가리킬 것)가 和議로 유혹하여 중도에서 도전했다 하니 이는 계략이라 할 수 있다며 장차 다시 和議를 맺을 때 또한 신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夷務가 더욱 처리하기 어렵게 되는데, 상해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助順剿逆」을 요청하니 (머지않아) 다른 變局이 생길까 심히 두렵다는 것이다.¹²²⁾ 또 王有齡에 올리는 稟에서 뿔는 逆匪가 上海를 침범한 이후 夷酋는 그들의 焚掠·참혹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빨리 出剿하려 하는데, 이것

118) 同上, 1980. 9. 7, p. 410.

119) <袁熙贊稟>, 1860. 10. 9, 《吳煦檔》(1), pp. 426~7.

120) <王有齡致吳煦函>, 1860. 9. 22, 《吳煦檔》(1), p. 421. 이것은 桂良이 天津에서 모든 요구조건을 수락한 9월 3일(음 7.18)의 소식을 접하고 난 후의 판단일 것이다.

121) <吳煦上王有齡稟>, 1860. 10, 《吳煦檔》(1), p. 428.

122) <吳煦復江清驥函>, 1860. 10. 2, 《吳煦檔》(1), p. 424.

은 「同仇」의 뜻이 절실한 것이며 또한 도로를 축적하여 부역을 알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을 허락한 셈이었는데 이제는 북쪽 사정 때문에 「助順」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悲運」 탓이라는 것이다.¹²³⁾ 이제는 上海官紳의 「借兵助剿」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감에서 절망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망감은 북경합락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통곡」과 함께 심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王有齡은 누가 國政을 잡았는지 그 罪를 어떻게 헤아릴 것이며, 和議가 단서가 없을 뿐만아니라, 실령 이복된다 해도 「國體」를 욕되게 했고 根本이 크게 상처를 입었으며 大勢가 동요되었으니 어떻게 善後할 것인지 통곡할 따름이라는 것이다.¹²⁴⁾ 이러한 인식은 北京 합락시 일반 민중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는데,¹²⁵⁾ 上海官紳의 경우에는 일찌기 「借兵助剿」 요구가 「國體」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더욱 비감했을 것이었다. 그러한 회한은 화의가 성립한 후 “일찌기 事機를 보아 和議를 정했으면 北事가 잘 해결되었을 것일 뿐만아니라 南事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¹²⁶⁾이라든지, 지난 3월(음)에 있었던 「助順之議」를 당국의 주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다면 큰 전환을 이뤘을 것이니 어찌 「城下之辱」이 있었겠느냐¹²⁷⁾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도 吳雲은 江蘇지방은 扁鵲이 다시 태어나도 손을 쓰기 어려울 만큼 重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유일한 방책은 전대로 夷力을 비는 길뿐이니, 毒으로써 毒을 공격하면 혹 「中興」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함으로써 전의 「借兵助剿」論으로 돌아가고 있다. 城下之盟의 치욕을 당했을지언정 그래도 患難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123) 〈吳煦上王有齡稟〉, 1860.10, 《吳煦檔》(1), p. 429.

124) 〈王有齡致吳煦函〉, 1860.10.16, 《吳煦檔》(1), p. 433; 同, 1860.11, p. 439; 同, 1860.11. 3, p. 439.

125) 당시의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拙稿, 〈西太后政權의 成立過程에 대하여 —辛酉政變의 再檢討—〉, 《東洋史學研究》 21, p. 67 참조.

126) 〈張景渠致吳煦函〉, 1860.11. 8, 《吳煦檔》(1), p. 440.

127) 〈吳雲致吳煦函〉, 1860.11.12, 《吳煦檔》(1), p. 441. 〈王有齡致吳煦函〉, 1860.11.23, 同, p. 444.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契丹이 宋을 도왔고 回紇이 唐을 원조했으니 사태가 어쩔 수 없을 때는 古人도 부득이 「從權」하지 않을 수 없었다든지 이른바 두 가지 害를 비교하여 그 가벼운 것을 取한다는 논리가 부활되며, 「借兵助剿」 활동의 구심점인 吳煦에 다시 한번 助剿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하는 것이다.¹²⁸⁾ 上海官紳에게는 「借兵助剿」가 북쪽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救急策이었고 「衆論」¹²⁹⁾이었던 것이다.

Ⅲ. 프랑스·러시아의 「助剿」제안에 대한 論議와 恭親王

1. 프랑스·러시아의 「助剿」제안과 恭親王

이미 보아왔듯이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에 대한 北京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나 비록 「城下之盟」이긴 하지만 和議를 맺어 外憂가 가라앉자 이제는 內患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¹³⁰⁾ 더우기 조약을 체결하자마자 중국의 내부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열강중 일부는 「助剿」를 제의해온 터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정의 태도, 특히 和議를 주재해온 恭親王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러시아의 군사원조 제의는 명확히 드러나 있었지만, 프랑스의 태도는 어떠한가. 청조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인가.¹³¹⁾

맨처음 「借兵助剿」 요청을 上奏한 사람은 欽差大臣 勝保였다. 勝保는 프랑스의 傳敎士 물리(Mouly)와 아뇌(Anouilh)가 프랑스와 和議를 맺은 후 이틀째가 되는 10월 27일(음 9.14)에 天津의 紳商 張錦文과 함께 와서

128) 〈吳雲致吳煦函〉, 1860.11.12, 《吳煦檔》(1), p.441.

129) 〈王有齡致吳煦函〉, 1860.11.23, 《吳煦檔》(1), p.444.

130) 北京條約 체결 이전에 이미 通州에서 협상을 하던 怡親王 載垣이 9월 14일(음, 7.29)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후 파아크스에게 太平軍에 대한 「助剿」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하나(Wade to Elgin, 1860. 9.23, pp: *Affairs in China*, p.169, Banno, *China and West*, p.48 所引) 중국측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31) Banno는 원조문제를 먼저 꺼낸 측은 분명히 청조측이며, 프랑스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한다. 프랑스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한 것은 恭親王의 허위 보고라 하고 있다. *China and West*, pp.207~8 및 p.332 주 23 참조.

그들의 흠차(Gros)와 장군(Montauban)은 원래 議和通商에 뜻이 있었지 惡意가 없었는데 영국이 「偪兵強戰」하여 부득이했던 것이라며 이제 和好하게 되었으니 프랑스는 수천의 병사를 파견하여 태평군 토벌을 돕겠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勝保는 이것은 귀국의 「美意」이니 자신도 옹하고 싶다면, 다만 「請旨」 후에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먼저 天津으로 퇴거한 후에 다시 「長策」을 논의하자고 대답했다 하고 있다. 그 후 張錦文이 보내온 稟에 의하면 이들 두 傳敎士는 그들의 使臣에 回報하니 매우 기뻐하여 이미 군사를 거의 다 철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와 함께 勝保는 지난번 小刀會로부터 上海를 탈환할 때 프랑스의 원조를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助剿」 제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영국을 고립시키고 外夷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¹³²⁾ 요컨대 勝保는 프랑스가 두 주교를 통해 먼저 「助剿」를 제의해왔다는 것이고, 프랑스는 영국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¹³³⁾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助剿」 제안을 수락하자는 것이었다.

곧이어 恭親王(文祥·桂良과 함께)은 두 건의 奏摺을 올리고 있다. 첫번째의 것은 11월 1일(음 9.20)자의 것으로서 영국의 桀驁함에 비해 프랑스의 馴順함을 강조하면서 “그로의 요청에 따른” 廣化寺에서의 접견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그로는 이번 친정이 본의가 아니고 영국의 牽制를 받은 데 지

132) <檔案史料>, 咸 10[9.18?], 《第二次》(五), No. 348, pp. 231~2. 이것은 奏片으로 本件은 《始末》卷 67, 咸 10.9.22, No. 2599, p. 2539로 보인다. 그것은 이에 대한 上諭(<檔案史料>, 咸 10.9.22, 《第二次》(五), No. 356, p. 244 및 《始末》卷 67, 同, No. 2600, p. 2540)에 法僧가 助剿의 뜻이 있다면 마땅히 兩國이 모두 철진으로 퇴거한 후를 기다려 恭王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할 것이니, 군사를 동솔하고 防剿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勝保는 거론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奏片의 작성일을 <檔案史料>의 편자는 硃批를 21일 받고 있고 당시 북경과 熱河간의 문서왕복일이 3일 걸리기 때문에 18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19일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예나하면 《襄理軍務紀略》(雪堂叢刻本, 1915)에 의하면 張錦文이 두 傳敎士(主敎)를 18일 만나고 나서 稟을 올렸는데, 稟에는 「昨見法國孟董二敎士」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卷 4, 《第二次》(一), p. 554), 실제로 북경과 열하 사이의 문서왕복 시간이 이를 걸림에도 저지 않다(예컨대 <檔案史料>, 《第二次》(五)의 No. 275, 285~7, 298).

133) 勝保의 이러한 英佛觀은 本件(《始末》卷 67, 咸 10.9.22, No. 2599, p. 2539)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나지 않았으며, 이제 중국을 위하여 「攻剿髮逆」하기를 원한다 했다는 것이다. 恭王은 이어 그 말이 분명치 않아 實際가 없다면서 중국의 「剿匪」事는 그들과 의논하게 되면 엇보는 마음을 열어주게 된다고 생각하여 즉시 「正言」으로 답변했다고 하고 있다.¹³⁴⁾

이를 후에 올린 奏摺에서는 전에 프랑스의 주교 물리와 아뇌가 굳이 접견하겠다고 요청하여 文祥에 접견토록 했는데, 그들은 프랑스는 본래 영국과 뜻이 맞지 않았고 이번 원정도 실은 영국의 견제를 받은 것이라면서 중국과 더불어 太平軍을 攻剿하기를 원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文祥은 그 말의 정중함을 보고 한마디로 거절할 수 없어 귀국은 우리의 客이므로 귀국의 군대를 노고롭게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恭王은 그들은 한갓 입으로만 호의를 보일뿐 필경 실질이 터럭만큼도 없어 가며이 믿을 수 없다 하고 있다.¹³⁵⁾ 또 이 奏摺의 奏片에서 恭王 등은 마침 勝保의 奏摺 사본 및 물리·아뇌의 稟函을 받았으면서, 11월 1일(음 9.20) 張錦文이 10월 29·30일자 稟函을 보내왔는데 그 函에는 긴요한 말이 없어 즉시 올리지 않았으며, 그후 文祥이 접견하여 완곡하게 거절했던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勝保의 대답과 다른바, 勝保는 그들의 뜻을 통찰하지 못하고 술책에 빠졌을 것이라면서 승보에게 輕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고 있다.¹³⁶⁾

이상의 내용은 요컨대 恭王은 그로 및 물리·아뇌의 「助剿」제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恭王 등은 「借兵助剿」를 바라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영국과 대비하여 프랑스에 대해서는 본래 惡意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프랑스의 「助剿」제의가 입으로만 好意를 보일뿐 실질이 없는 것이라 하므로써, 실제

134) <檔案史料>, 咸 10.9.20, 《第二次》(五), No. 348, pp. 234~5; 《始末》卷 67, 咸 10.9.23, No. 2601, pp. 2541~2.

135) <檔案史料>, 咸 10.9.22, 《第二次》(五), No. 351, pp. 237~8; 《始末》卷 68, 咸 10.9.25, No. 2606, p. 2546. 이에 대한 硃批는 親遞國書 조항에 따른 回鑾不可로 문책만 하고 「借兵助剿」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36) <檔案史料>, 同, No. 352, p. 239; 《始末》, 同, No. 2607, p. 2547.

로 「助剿」한다면 언제든 好意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恭親王은 말하자면 프랑스의 「助剿」 제의를 「美意」로 받아들인 勝保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단지 勝保처럼 직선적인 표현을 못하고 넌지시 암시하는 방법을 택하므로써 조정의 반응을 살핀 것이라 볼 수 있다. 恭王이 프랑스의 「助剿」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비슷한 시기에 그로에게 보낸 熙會에서도 드러난다. 恭王은 프랑스가 1855년에 상해의 小刀會를 공격하여 몰아낸 것은 「友誼相助」를 족히 입증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相好」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¹³⁷⁾ 이것은 프랑스의 「助剿」제안에 대한 찬성의 뜻을 상해 小刀會의 退出사건에 가탁하여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恭王의 奏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맨먼저 그로와의 접견(10월 31일)¹³⁸⁾을 보고하고 이보다 먼저 접견한 두 주교와의 접견일은 나중에 “前日” 혹은 “그후”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두 주교를 恭親王도 접견하고 있는데 文祥으로 하여금 만나게 했다고 한 점 등이다. 《襄理軍務紀略》에 의하면 和議가 맺어지기 얼마전 和議件에 대해 恭親王에게 자문하기 위해 급히 上京했던¹³⁹⁾ 張錦文이 물리와 아늑가 “만약 영불 양국의 군사비용을 마련해준다면 자신들이 양국 사신에 중재하겠다” 하고 다시 “宴會를 베풀 때 恭王이 직접 말하면 반드시 協和하게 될 것”이라 했다는 소식을 듣고(10월 25일, 음 9.12) 먼저 勝保에게 두 주교를 안내했다 한다(10월 27일). 勝保는 이들의 「助剿」 제의를 恭王에 아뢰고 후 다시 상의하자 했는데, 이튿날 恭王이 張을 통해 이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天寧寺에 간 이들은 恭王이 감기에 걸렸으니 다시 謁見하라는 桂良과 文祥의 요구에 張이 “이미 오라 해놓고 거절한다면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라 하여 恭王을 만나게 되었다 한다.¹⁴⁰⁾ 이렇게 본다면 張錦文의 앞선으로 두 주교는 勝保를 만났고

137) <檔案史料>, 咸 10.10.25, 同, No.409의 附件 3, p.311.

138) Banno, *China and West*, p.187, 205 참조.

139) 《襄理軍務紀略》, 卷 4, 《第二次》(1), pp.550~1 참조. 恭親王·勝保·瑞麟·文祥 등이 上京을 재촉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다.

140) 同上, pp.552~3 참조. 《襄理軍務紀略》은 張錦文의 업적을 기리는 의도로 쓰

다시 勝保는 恭王에 보고하므로써 恭王이 즉시 이들을 불렀던 것이다. 이것은 곧 恭王이 「助剿」제의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⁴¹⁾ 이들 주교는 또 張을 통해 프랑스 使臣이 프랑스 官員 수명을 京師에 남겨 충포를 주조하고 그 사용법을 敎演시킬 의향이 있음을 전하고 있고, 張은 이를 勝保에 稟을 올리고 있는데,¹⁴²⁾ 勝保나 恭王은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에서 청조측에서는 張錦文이, 프랑스측에서는 물리·아뇌 두 주교가 협상중재자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는데, 두 주교는 프랑스 사신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활동한 이상,¹⁴³⁾ 「助剿」件은 프랑스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¹⁴⁴⁾ 물론 이 즈음 恭親王도 「助剿」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성사될 여건은 성숙했었지만, 熱河의 반응이 차가웠고 열하에서 咸豐帝를 속히 「回鑾」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을뿐만 아니라,¹⁴⁵⁾ 아직 연합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恭親王이 적극적으로 奏請

여겼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이나, 예컨대 두 전교사와 승보의 접견일·내용 등이 승보의 奏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정확성을 갖고 있다. 단 勝保의 奏에는 「諍旨」후 결정할 수 있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恭王에 아뢰는 상의하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후자가 맞음이 분명할 것이다.

141) 이들과 恭王과의 면담 내용은 恭王 등의 奏에는 처음에는 조약중 傳敎에 관한 조항에 대해 논의한 후 나중에 「助剿」를 제안했다(〈檔案史料〉, 同, p. 237)고 한 데 비해서, 張錦文은 天主堂 상화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나 「助剿」件은 언급하지 않았다(p. 553)고 한다. 그러나 전일 勝保를 찾아 왔을 때 분명 「助剿」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자쪽의 기술이 의심스럽다.

142) 《襄理軍務紀略》, 同, p. 554 참조. 이 件에 대해서도 勝保는 “恭王에 請한 후 다시 상의하자”고 했다 한다.

143) 양 주교와 그들 使臣이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이들이 恭王에 보낸 10월 29·30일의 서신에서도 알 수 있다. 두 주교는 Gros 및 Montauban 공판에 가서 退兵件을 「密商」하고 있고, 또 恭王이 Gros 나 Montauban 과 會見하고자 한다면 30일 혹은 31일중 택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檔案史料〉, 咸 10. 9. 22, 《第二次》(五), No. 352의 附件 1, 2, p. 240). 10월 31일 恭王과 Gros 와의 廣化寺에서의 접견이 이뤄진 것도 이들 두 주교의 중재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恭王이 이 두 서한을 11월 1일(9.20) 받았다고 한 것도 거짓인 셈이다.

144) 夏燮, 〈外夷助剿〉, 《中西紀事》卷 20, 1a 에도 Gros 가 「修好」와 「漁夫之利」를 얻을 의도로 연희서장에서 스스로 자국의 船砲의 堅利함을 자랑하며 필요하다면 팔겠으며 製造하고자 한다면 기술자를 파견하여 「敎習演試」할 의향이 있었다고 한다.

145) 回鑾요청에 대하여는 拙稿, 〈西太后政權의 成立過程에 대하여 —辛酉政變의 再檢討—〉, 《東洋史學研究》21, pp. 77~8 참조.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이러한 제의는 러시아가 和約을 맺으면서 총포제조 및 그 사용법을 가르칠 敎員의 파견, 水軍 3·4백명을 파견하여 「助劑」하겠다는 제의를 해움에 따라 다시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는 1850년대 초부터 청조지 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¹⁴⁶⁾ 정식으로 총포 및 군사교관 파견을 제의해 온 것은 1858년 이후의 일이었다.¹⁴⁷⁾ 당시 총포(조총 1만정과 각종 포 50문) 및 군사교관 파견에 대해서는 흠차대신 桂良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받아들이고자 하여 승인했었다.¹⁴⁸⁾ 그러나 러시아의 군사원조 제안의 목적이 아무르강 유역의 만주지방과 몽고에서의 이익옹호 및 영국·프랑스·미국 등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개항장에서의 해상무역 확보라는 두 가지에 있었고,¹⁴⁹⁾ 1859년 이 군사원조가 아이군조약의 비준 및 새로운 영토할양의 전제조건임을 안 청조는 이를 거절하였었다.¹⁵⁰⁾

1860년 청조를 위해 열강과의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자처했던 이그나티에프(Ignatiev)는 북경조약을 맺은 11월 14일 恭親王에 다시 총포제조법 및 그 사용법을 가르칠 몇 사람을 정사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⁵¹⁾ 귀국하기 전에 11월 19일 恭王을 방문한 그는 다시 정식으로 총포원조 및 그 제작법·사용법을 가르칠 교관 파견, 청조의 육군과 협공할 3·4백명의 수군 파견, 그리고 京師로 운반할 漕運의 협조 제공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¹⁵²⁾

이에 대한 공친왕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었

146)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沙俄侵華史》第2卷, 北京, 1978, pp.244~9 참조.

147) 《始末》卷 25, 咸 8.5.10, No.1014, p.937; 同, 卷 27, 咸 8.5.18, No.1056, 1061~2, pp.985, 998~1000 등 참조.

148) 《始末》卷 25, 咸 8.5.10, No.1014~5, pp.937~9; 同, 卷 27, 咸 8.5.18, No.1058, p.987; 同, 卷 33, 咸 8.12.24, No.1310, p.1241.

149) Teng, *Western Powers*, pp.271~9 참조.

150) Banno, *China and West*, pp.141~3, 155; 《沙俄侵華史》第2卷, p.250; Teng, *Western Powers*, p.279 등 참조.

151) 《始末》卷 69, 咸 10.10.6, No.2667, p.2601.

152) 《始末》卷 69, 咸 10.10.11, No.2674, p.2607. 이 주점은 11월 21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檔案史料〉, 咸 10.10.9, No.390, 《第二次》(五), p.284 참조).

다고 볼 수 있다. 총포운송건에 대해서 恭親王은 호의로 받아들여줬다고 대답했다면서, 감복하여 쉽사리 받아들이면 (중국을) 업신여길 것이지만 운송지점이 경사와 멀고 그 지점도 중국이 택하기 때문에 해가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다. 「協剿」件에 대해서는 중국의 兵勇이 수십만이기 때문에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면서도 몇가지 장점을 들고 있다. 즉 江浙지방은 「財賦之區」로서 병력이 부족하여 剿辦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逆匪를 하루라도 평정하지 못하면 그곳을 온전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外侮」를 막으려 해도 힘이 못미친다는 것이다. 「報仇」의 뜻을 한 사람도 잊지는 않았지만 夷兵의 힘을 빌어 逆賊을 몰아낸다면 중국의 「元氣」도 점차 회복될 것이며, 그들이 승리한다 해도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고 패한다면 또한 오만한 뜻을 죽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協剿」를 빌미로 탐욕스런 마음을 밋대로 한다면 「有害無利」일 것이라면서 감히 단안을 못내리겠으니 兩江·江蘇·浙江의 督撫에 密勅을 내려 함께 의논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만약 「利多害少」면 敕急의 방편으로 삼을 만하고 또한 「通賊之計」를 끊고 天津에 주둔하려는 마음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¹⁵³⁾ 恭親王은 총포와 교관건은 적극 받아들여자는 것이고, 「助剿」건도 후환이 두려워 단안을 내리지 못하겠다면서도 장점을 자세히 열거하여 적극 수용하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兩江·江浙의 督撫에 의견을 구하고자 한 것은 지방대신들의 발언권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래 「借兵助剿」論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왔고 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恭親王의 제안대로 恭王에게는 이그나티에프에게 恰克圖로 총포를 보내줄 것을 알리고 兵丁을 뽑아 교대로 그곳에서 제조·사용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¹⁵⁴⁾ 曾國藩(홍차대신·양강총독)·薛煥(강소

153) 同上, p.2608 및 《始末》卷 69, 咸 10.10.13, No.2683, pp.2167도 참조.

Ignatiev는 「協剿」件을 영불에 알려서는 안된다 하고 있다.

154) 《檔案史料》, 咸 10.10.11. 《第二次》(五), No.395, p.290; 《始末》卷 69, 咸 10.10.11, No.2675, p.2609. 《始末》卷 70, 咸 10.10.20, No.2698, p.2631도 참조.

순무)·瑞昌(杭州將軍)·王有齡(절강순무)·袁甲三(흙차대신·漕運總督)등에게 「助剿」와 「漕運」件에 대해 의견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¹⁵⁵⁾ 전에 프랑스의 제의 때 품고 있던 「助剿」에 대한 갈망이 러시아의 제의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⁵⁶⁾ 이제 영불군이 天津으로 칠수했고 回鑾日이 늦춰진 상태에다 러시아의 제의는 (비록 종포조건이긴 했지만) 전에도 조정의 허가를 얻은 바 있었기 때문에 恭親王은 지방대신의 의견수렴이라는 형태로 「助剿」문제를 적극 수용하려 했던 것이다.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이 이리하여 공식적으로 검토되게 된 셈이다.

2. 지방대신의 贊反論과 恭親王

「助剿」문제에 대하여 가장 먼저 覆奏하고 있는 자는 漕運總督 袁甲三으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의 근거로서 袁은 다음 몇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중국의 水軍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막강하여 외국만 못한 것이 아니다. 둘째 러시아가 제의한 수군 3·4백명은 선박수로 따지면 겨우 수척에 불과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 廣勇·楚勇은 중국인인데도 통제하기 힘들거늘 계약에 능한 그들은 제어할 수 없다. 네째 그들에 제공할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며 승리한다 해도 공을 내세워 요구가 끝이 없을 것이고 패한다 해도 그 배상요구가 가혹할 것이다. 다섯째 廣勇 및 太平軍과 결탁할 우려가 있으니, 이는 「引虎入窠」이며 「호랑이에 날개를 붙여준 격」으로 즉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러시아는 「禍心」을 내포하고 있으니 지난번 火器 1만정을 보내준 다 한 것도 「愚弄之計」였고 북경점령시에도 영불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그들이었다. 따라서 그들로부터 「助剿」를 받는다는 것은 「利少害多」인 것

155) <檔案史料>, 咸 10.10.11, 《第二次》(五), No.369, p.291; 《始末》卷 69, 咸 10.10.11, No.2676, pp.2609~10; 夏燮, <外夷助剿>, 《中西紀事》卷 20, 1b~2a. <檔案史料>에는 福建陸路提督(李?)도 포함되어 있으나 覆奏를 하고 있지 않다.

156) 위 上諭에는 “프랑스도 경사에 있을 때 이러한 제의가 있었다”고 하고 있다.

이 아니라 「有害無利」이기 때문에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⁷⁾ 袁의 이러한 반대론은 요컨대 「後患」에 주안점을 둔 논리였다. 이러한 철저한 반대론은 和議를 맺기 바로 전에도 「能剿而後能撫」라 하여 주전론을 펴 그의 성향으로 보아¹⁵⁸⁾ 당연하다 할 수 있다. 水軍에 대한 過信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표시한 사람은 江蘇巡撫 薛煥이었다.¹⁵⁹⁾ 薛은 먼저 蘇省의 군사실태를 말하면서 지난번 「衆口同聲」으로 나왔던 官紳들의 「借兵助剿」論이 「良策」이었다는 것, 러시아·프랑스의 自講은 진심의 발로라는 것, 군사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까지 8년간 매년 약 1000만량의 군항을 소모했으면서도 南京을 수복하지 못했음에 비하면 속히 남경을 숙청한다면 오히려 군비는 절약하는 셈이 된다는 것, 수군으로 먼저 남경을 탈취하고 양자강을 확보하면 陸路軍에 軍餉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薛은 袁과 대조적으로 군사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水軍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薛은 나아가 육군의 파견까지 바라고 있으며 수군도 꽤 수십척, 병력도 수천명이 아니면 안된다 하고 있다. 薛은 「助剿」의 효과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 논자들은 夷人の 內地 침투를 걱정하나, 天津條約에는 원래 內地通商 조관이 들어 있으니 夷兵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그들의 內地 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海外之雄」인 러시아는 영국이 두려워하는 나라로 영국과 太平軍과의 결합도 막을 수 있으니 이는 「以夷制夷」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식도 袁과 현격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薛은 太平軍이 평정되면 元氣도 회복되고

157) <檔案史料>, 咸 10.10.27, 《第二次》(五), No.411, pp.314~6. 《始末》卷 70, 咸 10.11.4, No.2705, pp.2639~41. 《始末》에는 생략된 부분이 많다.

158) <檔案史料>, 咸 10.9.11(도착일), 《第二次》(五), No.326, pp.195~7; 《始末》卷 66, 咸 10.9.11, No.2539, pp.2483~5. 《始末》卷 69, 咸 10.10.6, No.2671, pp.2603~5도 참조.

159) <檔案史料>, 咸 10.11.3, 《第二次》(五), No.414~5, pp.319~322; 《始末》卷 71, 咸 10.11.18, No.2725~6, pp.2659~61; 《吳煦檔》(1), 1860. 12. 14, pp.38~41.

軍餉도 넉넉해지며 兵士도 용맹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夷人도 懾服되어 「未萌之患」을 막을 수 있으니 「救急之方」만이 아니며 「利多害少」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비를 어떻게 지분할 것인지 恭王이 양국 사신과 상의하여 章程을 만들고 전리품을 5할은 국고에, 나머지 2할은 중국의 兵勇에, 3할은 外國軍에 분할하는 방식을 제안하므로써, 중국의 資財가 모두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고 있다. 지난번 上海官紳들의 奏請 요구에 냉담했던 薛이 이제는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¹⁶⁰⁾

이렇듯 袁甲三과 薛煥의 견해는 대조적인데, 이들의 차이점은 약 한달 후 薛의 覆奏에 대한 袁의 반론 제기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즉 薛은 군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속히 숙청할 수 있다면 절약된다고 하는데, 鮑源이 이미 없는데 어떻게 조달할 수 있으며, 양자강을 숙청하면 육군에 보급할 수 있다지만 그들의 화륜선은 양자강에서 충분히 기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숙청할 수 있다 해도 그들은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그들이 陸路軍을 파견하고 京師의 精兵으로 會剿한다지만 京兵은 파견할 여유도 없고 그들은 이기면 「爭功」하고 패하면 실수를 미룰 것이며, 러시아와 연합하면 영국이 태평군과 결합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夷情은 변화무쌍하여 러시아가 太平軍과 결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夷兵을 빌지 않아도 內地 칩투를 막을 수 없 않지만 양자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또 恭王으로 하여금 경비지급 문제에 대해 章程을 만들게 한다지만 대규모 夷兵을 빌면 그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夷餉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章程을 내세워 책망할 것이고, 또 어찌 內地의 餉은 주지도 않고 이를 夷人의 誅求에 공급할 수 있으며, 노획물을 均分한다지만 그들이 순순히 따를 리가 없을 것이라

160) 吳煦는 薛의 초고를 보고 京兵을 파견하여 協剿하기를 청하면 聲勢가 더욱 壯할 것이라면서 薛에 이 조항을 추가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吳煦上王有齡稟〉, 1860.12.14(음 11. 3), 《吳煦檔》(1), p.448). 吳煦의 요청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몰라도 薛의 奏에 이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는 등등 蕪의 견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袁은 軍餉이 있건 없건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남경을 수복한다 해도 그들이 점령하여 割据의 형세를 이룰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¹⁶¹⁾

요컨대 양자의 견해의 차이점은 현 중국의 군사정세(능력유무) 문제, 군사비용 문제, 러시아(및 프랑스)에 대한 인식(후환유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江浙지방의 경우 앞에서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에서 보았듯이 군사정세에 관한 蕪煥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軍餉지급 문제나 러시아에 대한 인식 문제는 袁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上海官紳들도 軍餉 결핍이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였고, 또 러시아의 교활한 영토침략은 익히 경험했던 바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袁의 論理에도 허점이 있었다. 蕪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袁은 마지막으로 만약 그들이 통상을 위해 속히 口岸을 회복하고자 하면 그들 스스로가 攻取하도록 허락하고 중국은 군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方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적어 이기든 夷人이 이기든 중국은 앉아서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¹⁶²⁾ 그러나 이 방책은 군사비용만을 고려한 것이지 殊批에서 지적하고 있듯이¹⁶³⁾ 그들의 「할거」위험성은 간과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¹⁶⁴⁾

두 사람의 覆套에 뒤이어 도착한 兩江總督 曾國藩의 견해는 양자를 절충한 성격의 것이었다. 曾은 먼저 러시아는 중국과 아무런 「嫌怨」도 없었고 「助剿」를 요청한 데에는 다른 「危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161) <檔案史料>, 咸 10.12.2, 《第二次》(五), No. 431, pp. 348~5; 《始末》卷 71, 咸 10.12.8, No. 2751, pp. 2688~90.

162) <檔案史料>, 同上, p. 350.

163) 同上註. 아울러 생각하는 바가 「深遠」하여 채택할 만하다면서 공왕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164) 胡繩은 袁이 지방당국과 외국인이 합작할 수 있도록 인정했기 때문에(袁은 蕪煥으로 하여금 그들과 「進兵之路」를 상의하도록 하자고 하고 있다) 실은 「借兵」에 진실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從雅片戰爭到五四運動》(上), 上海, 1982, p. 281). 그러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논리상의 모순이라 봐야 할 것이다.

양자강 전역에는 중국의 水軍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중국군의 취약점은 水路에 있는 것이 아니라 陸路에 있는 것이며 太平軍의 활동도 陸路에서 행해지고 있지 水路가 아니라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금 중국의 陸軍이 급히 남경으로 진격할 수 없어 러시아의 兵船이 올라와도 夾擊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効順」의 진심을 칭찬하고 「會師之期」를 늦춰 육군이 안휘·절강·소주·상주의 各郡을 수복할 때까지 기다린 후 그 때 가서 다시 「派船助剿」를 상의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에게도 일단 來助를 허락하여 의심을 풀 후 「師期」를 늦추어 위급해서 구조를 요청한 것이 아님을 밝히자 하고 있다. 또한 曾은自古로 外夷가 중국을 도운 후에는 매번 意外的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조건을 약정하여 上海의 糧台에서 지급하기로 하므로써 爭端을 막자고 하고 있다. 아울러 장래 夷智를 배워 「造砲製船」하면 「永遠之利」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첨언하고 있다.¹⁶⁵⁾

오견대 曾은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시기를 늦추어 유보하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蔣煥과 같이 러시아가 「危謀」를 갖고 있는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袁甲三과 같이 중국군은 水軍이 충분하며, 그들의 예기치 않은 요구가 많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袁의 반대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曾은 분명히 「助剿」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육군에 취약점이 있다면서 프랑스군을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없으며, 육군이 江浙지방을 수복할 때까지 기다려 협격한다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른다면 군이 外夷로부터 「助剿」를 받을 필요성이 사라진 때인 것이다. 曾은 袁甲三처럼 노골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유보라는 완곡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자신의 湘軍이 江浙지방을 탈환하기에는 아직 미력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¹⁶⁶⁾ 戰功을 「獨食」하려는 의도

165) <檔案史料>, 咸 10.11.8, 《第二次》(五), No.420, pp.330~2; 《始末》卷 71, 咸 10.11.25, No.2734, pp.2667~9; <復陳洋人助剿及採米運津摺>, 《曾文正公全集》, <奏稿>卷 12, 18a~19b.

166) Wang, "China's Use," p. 570.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¹⁶⁷⁾ 여기에서 그의 처세술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曾國藩에 뒤이어 올린 浙江巡撫 王有齡과 杭州將軍 瑞昌의 覆奏는 江浙兩省의 政務를 설명한 후 外兵을 빌게 되면 특별한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 미리 헤아리기 어려우나 다만 그들의 요청은 「同仇敵愾」의 성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의논한 바대로 거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상해에 있는 薛煥과 吳煦는 機宜를 잘 알고 膽識이 뛰어나 잘 처리할 것이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助剿」에 찬동하고 있지만, 전에 적극적으로 「借兵助剿」論을 전개했으나 上奏에는 소극적이었던 王有齡은 여기에서도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¹⁶⁸⁾

袁甲三·薛煥·曾國藩의 奏를 차례로 받은 조정은 袁의 「有害無利」論 자체는 「正論」이지만 거부함이 심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니, 勢利로 유도하여 중국이 조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한 후, 曾國藩의 案이 행할 만한 것 같다 하고 있다. 이리하여 필요한 군사비용을 미리 약정해야 할지 恭王 등은 상의하여 具奏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¹⁶⁹⁾ 袁의 견해가 「正論」이라 하면서도 유보적인 曾의 방안을 취하려는 태도는 肅順을 중심으로 한 당시 熱河派의 애매하고 우유부단한 태도¹⁷⁰⁾의 한 반영이라 볼 수

167) 茅家琦, 《太平天國對外關係史》, p.178; Wang, "China's Use," p.568. 郭嵩燾는 이 奏摺을 評하여 「立言尤爲得體」라 하고 있다. 《郭嵩燾日記》(1)(湖南人民, 1980), 咸 10.12.25, p.424.

168) 《檔案史料》咸 10.11.9, 《第二次》(五), No.421, pp.332~3; 《始末》卷 71, 咸 10.12.2, No.2738, pp.2672~3; 《吳煦權》(1), 1861. 1.13, pp.45~7. 후자의 日期는 編者의 오류이다. 王 자신도 12월 20일(음 11. 9)에 작성했다 하고 있다(《王有齡致吳煦函》, 《吳煦權》(1), p.452).

169) 《始末》卷 71, 咸 10.11.25, No.2735, pp.2669~70. 瑞·王의 奏에 대하여는 《始末》卷 71, 咸 10.12.2, No.2739, pp.2673~4 참조.

170) 肅順一派과 和戰兩論 사이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보인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는 拙稿, 《西太后政權의 成立過程에 대하여 一半西政變의 再檢討—》, 《東洋史學研究》21, p.69 참조. 來新夏는 이 상유가 袁의 견해를 반대하고 勢利로 유도하던 軍務에 도움될 것이라 했다 하여 「借兵助剿」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고 있는데(《關於第二次鴉片戰爭後中外反動勢力結合的問題》, 《歷史教學》1954—11, p.32), 이는 분명히 「借兵」의 의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반대를 의미하는 曾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조정에 定見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태도는 더우기 薛煥의 案이(미리 조건을 약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긴 하겠지만) 曾의 견해와 「大同小異」라 하고 있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있을 것이고, 당시 曾의 위치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단면이기도 할 것이다.¹⁷¹⁾

이 상유를 받은(1861. 1. 6, 음 11. 27) 恭親王은 보름이 지난 1월 21일 覆奏를 올리고 있다. 恭王은 袁甲三의 견해는 논리가 가장 명석하고 「正論」이며, 曾國藩의 견해는 軍情의 緩急과 外夷를 견제하는 방법이 시의적절하며, 蔣煥의 견해는 水·陸軍이 함께 진격하면 효과가 빠를 것이라 하니 曾의 견해와 「大同小異」한 것(水軍만으로는 不可하다는 의미에서 일 것)이라 요약하고 있다. 이것은 곧 袁과 曾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曾의 견해에 대해 恭王은 夾擊의 효과가 없다는 말에 동감을 표하면서 各郡이 수복된 후 다시 甯鏡을 함께 공격하자는 말은 그때 가면 夷兵을 빌 필요가 없으니 그 뜻은 행할 수 없다고 본 것 같다고 하여 曾의 견해도 「借兵」을 반대한 것이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蔣의 夷로부터 육군도 빌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恭王은 경유하는 지역이 소란스러워 질 것이고 모든 경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난점이 있다 하여 그의 京兵과전 주장과 함께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곧 袁甲三의 반대론을 따르는 것이니, 일단 「助剿」를 허락하면 사전의 요구가 심할뿐만 아니라 후환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승리할 수 없다면 부족한 軍餉으로 「無用之兵」을 기르는 셈이며, 城池를 수복한다 해도 그곳을 점거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太平軍과의 결합 우려도 袁과 마찬가지로이다. 요컨대 “袁의 견해는 이치에 의거하여 「直陳」한바, 그 소견이 정말 옳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태평군과 결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小利」로 달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小利」로서 恭王은 총포와 배를 구매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아울러 曾의 夷艦을 배워 砲船을 제조하자는 제의를 지지하며(단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雇用) 각 해관의 관세로

171) 曾國藩의 案에 호의를 보이는 것은 肅順이 그를 兩江總督에 추천한 것(薛福成, 〈肅順推服楚賢〉, 《庸齋筆記》, 江蘇人民出版社, 1983年本, pp.14~5)과도 관련될 것이다.

서 그 재원을 충당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¹⁷²⁾ 恭王의 견해는 요컨대 夷의 반대론에 입각하여 粵의 총포와 선박의 제조론을 첨가한 것이고, 그 논리는 「후환무궁」론으로 요약된다. 태평군이 점거하면 회복할 날이 있지만 夷가 점거하게 되면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¹⁷³⁾

얼마전에는 하루라도 속히 太平軍을 평정하여 元氣를 회복하는 것이 좋으며, 그들이 승리한다 해도 그들의 손실이고 패해도 오만한 뜻을 꺾을 수 있다던¹⁷⁴⁾ 恭親王의 태도가 이렇듯 갑자기 「借兵助剿」不可論으로 바뀐 까닭은 무엇인가. 프랑스의 「助剿」제의를 받았을 때는 英夷가 가장 「桀驁」하고 프랑스는 그들에게 견제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지 프랑스의 小刀會 격퇴를 칭찬하던¹⁷⁵⁾ 그가 이제는 프랑스를 「貪狡」하고 “가장 利를 탐”한다¹⁷⁶⁾고 말하게 되는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더우기 恭王은 이 覆奏를 올리기 열흘전만 해도 영불군의 天津으로의 철수를 언급하여 그들은 토지와 人民을 탐하지 않는다면서 諸葛亮의 「聯吳伐魏」정책을 제시하므로써 열강과 연합하여 「心服之害」인 太平軍을 토벌하자는 뜻을 비치지 아니했던가.¹⁷⁷⁾

그 까닭은 恭王의 覆奏 속에 나타나 있듯이 한마디로 영국측의 간섭 때문이었다. 恭王은 웨이드(T. F. Wade)와의 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웨이드는 「助剿」를 타인으로부터 도움받을 경우 그들이 城池를 수복한 후 점거하여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비단 프랑스·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라 했다는 것이다. 印度의 경우가 바로

172) <檔案史料>, 咸 10.12.11, 《第二次》(五), No.432, pp.350~5; 《始末》卷 72, 咸 10.12.14, No.2755, pp.2693~7.

173) <檔案史料>, 同上, p.354. 이것은 袁甲三이 薛煥의 覆奏를 비판하는 가운데 말한, 그들이 스스로 蘇常을 進剿하고자 하면 허락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는 「愚民의 뜻」이라 하여 비판하며 한 말이다.

174) 주 153) 참조.

175) <檔案史料>, 咸 10.9.20, 《第二次》(五), No.348, p.234. 및 주 137).

176) <檔案史料>, 咸 10.12.11, 《第二次》(五), No.432, pp.351, 352.

177) <檔案史料>, 咸 10.12.1, 《第二次》(五), No.428, pp.340~1; 《始末》卷 71, 咸 10.12.3, No.2740, pp.2674~5. 그들이 「爭城奪地」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연합군의 철수 바로 뒤에 이미 나오고 있었다.<檔案史料>, 咸 10.9.29, 《第二次》(五), No.374, p.270 참조.

그러한 例라 했다는 것이다.¹⁷⁸⁾ 이 말의 내용은 영국의 외교문서 내용과 일치한다. 웨이드가 브루스에 보낸 서한에 의하면 恭王은 文祥과 함께 覆奏를 올리기 적어도 열흘전 그리고 이틀전에 웨이드를 만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담론중에서 恭王과 文祥은 영국에 「助剿」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文祥은 현재 각종 곤란한 점이 다 해결되었는데 단지 太平軍과 捻匪만이 남았다면서 영국의 무기와 부대만 있다면 능히 반란을 평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웨이드가 이에 대해 포루투갈이 영국 軍官의 통솔하에 있는 지 겨우 2년만에 매우 우수한 군대가 되었다면서 군사훈련 방안을 제시하자 文祥은 “2년! 만약 보다 단시간내에 유효한 방법이 없다면 청조는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하여 영국에 직접적인 원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¹⁷⁹⁾ 覆奏 이틀전에 嘉興寺에서 다시 만나 웨이드가 황제가 즉시 回京하여 진정한 외교관계(상호 사절파견을 포함한)를 맺으면 어떠한 원조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 원조는 영국의 내정불간섭 원칙 때문에 불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것이라 했을 때, 恭親王은 전력을 다해 반란이 영국의 상업에 장애가 됨을 증명하려 했으며, 文祥은 영국의 불간섭정책이 진실로 옳다면서도 몇번이나 “너희들(방점은 웨이드) 외국인 이 아니면...帝國은 반드시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恭王이 다시 영국의 人員·무기 혹은 軍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웨이드는 진정한 외교관계가 성립하면 공사가 어떤 건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경험상으로 보아 일단 무장간섭을 하게 되면 통상절령을 야기하고 절령은 併呑을 낳는다는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恭王은 영국의 정책이 완전히 옳다면서 중국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건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다. 요컨대 恭親王과 文祥은 영국이 아니면 「助剿」할 수도, 「助剿」를 부탁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웨이드는 진정한 외교관계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내

178) <檔案史料>, 咸 10, 12, 11, 《第二次》(五), No. 432, p. 352.

179) F.O. 17/350, Wade to Bruce, 1861. 1. 11, 嚴中平, <一八六一年北京政變前後中英反革命的勾結>, 《歷史教學》52-4, p. 15.

정불간섭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恭王이 覆奏를 올리기 바로전까지만 해도 「借兵助剿」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고 영국이 빠진 프랑스·러시아만의 「助剿」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영국이 열강중 최강국이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견제당하고 있다는 인식의 표현이기도 했다. 영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갈망이 왕조가 망할 운명에 있으니 도와달라는 극한논리를 채용하게 한 것이다.

또하나 이들 담화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국이 프랑스와 러시아의 「助剿」설에 몹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웨이드는 恭王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프랑스와 러시아에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강한 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얼마전 상해에 도착한 上諭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蘇煥에 覆奏를 지시한 상유를 지칭한 듯한데, 恭親王은 그것은 그들이 날조한 것이 라면서 그들은 일찌기 합작하여 반란에 대처하자는 제의를 했었지만(웨이드와 브루스의 강조점) 중국은 절대로 제의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웨이드는 브루스에 그러한 論旨는 날조된 謠言일 것이라 하고 있고 또 이 그나티에프가 공친왕과 煥約할 때 황제가 원조를 요청했다는 요언과 이그나티에프가 무기와 人員을 파견하여 「助剿」하겠다고 했다는 요언도 믿을 수 없다 하고 있다.¹⁸⁰⁾ 영국측은 청조가 프랑스와 러시아에 助剿를 요구했다든지, 러시아가 청조에 「助剿」하기로 했다는 謠言을 들어 알고 있었고 이에 강한 의문을 恭親王에 제기했던 것이다. 영국에 간절히 「助剿」를 요구하는 입장에 있던 恭親王에게는 이것은 곧 영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이들의 원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위협으로 인식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공친왕은 영국의 원조를 받기 위한 절박감과 영국의 위협감 속에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원조제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

180) 이상은 F. O. 17/350, Wade to Bruce, 1861. 1. 20, 嚴中平, 同上, pp. 16~7.

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의 반영이 바로 恭親王의 覆奏였던 것이다.¹⁸¹⁾

이리하여 프랑스·러시아의 「助剿」제의를 계기로 실현될 수 있었던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은 다시 좌절되었다.

맺 음 말 —上海官紳의 반응—

1850년대초부터 제기된 「借兵助剿」論은 기본적으로 上海官紳으로부터 제기된 것이었고 특히 1860년 太平軍의 東進에 따른 上海官紳의 위기의 식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중심은 吳煦와 王有齡이었으며 何桂清의 上奏는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北京條約 이후 프랑스와 러시아의 「助剿」제의를 계기로 恭親王도 「借兵助剿」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그의 제안에 따라 지방대신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논의는 袁甲三과 曾國藩의 반대론과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을 대변한 薛煥의 적극적인 찬성론으로 갈려 있었다. 여기에서 恭親王은 반대론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영국의 견제 때문이었다. 현실적으로 최대 열강인 영국을 도외시하고는 다른 열강으로부터의 「助剿」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영국에 대해 「助剿」를 간절히 요청하던 恭親王은 영국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타국의 「助剿」제의에 대해 간섭하게 됨으로써 반대론을 채용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이 좌절된 셈인데 그 과정에 대하여 上海官紳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선 그들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助剿」에 대한 기대감 및 그것이 늦어지고 있다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인식에 따른 불안감이다. 가령 吳煦는 엘진이 곧 回國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助順」은 끝난 것”이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치는 엘진이 러시아와 프랑스가 「助順」한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그들이 유리한 기반

181) 茅家琦는 恭王이 「借兵助剿」에 반대한 또다른 이유로서 肅順一派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들고 있으나(《太平天國對外關係史》, p.179) 그 典據를 들지 않고 있다. 주 170) 및 171)도 참조.

을 독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영국의 군사도 함께 「助剿」하게 할 것이라 했다는 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¹⁸²⁾ 王有齡도 覆奏를 작성할 즈음 대체로 明年이 되어서야 「助剿」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통탄하고 있다.¹⁸³⁾ 紳士들도 프랑스와 러시아의 「助順」은 진실로 准行해야 할 것¹⁸⁴⁾이라면서도 언제 舉動할 것인지 걱정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¹⁸⁵⁾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曾國藩·袁甲三의 반대론을 들었을 때, 가령 王有齡은 曾이 水師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에 대해 들다(陸軍도) 필요하다면서 曾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浙江 및 江西까지도 잘못되게 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曾과 袁의 전해가 표면상으로는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마는 내면의 자세한 사정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蘇·常을 수복한다는 말을 어찌 그리 쉽게 하는지 「長敷」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¹⁸⁶⁾ 吳煦도 恭王의 覆奏는 곧 (「助順」의) 저지를 논의한 것이니, 실로 曾과 袁의 두 奏摺에서 잘못된 것¹⁸⁷⁾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上海官紳들이 그들의 「借兵助剿」論이 좌절되게 된 요인이 曾國藩과 袁甲三의 반대론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또 한가지 요인으로서 영국의 견제를 듣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가령 吳煦는 프랑스의 몽포방장군은 적극 剿賊할 마음이 있는데 일찌기 京師에 있을 때 英使와 상의했으나 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國王에 청하여 獨辦하고자 한다면서도, 영국인이 기꺼이 會辦하지 않는 데 애로가 있어 함부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¹⁸⁸⁾ 그러나 吳煦는 몽포방이 본국의 회신을 받을 기일이 넘었는데도 확답이 없다면 이는 혹 영국이 움직이지 않는 탓으로 함께 방관하는 것일 것이라

182) <吳煦上王有齡稟>, 1860. 12. 14, 《吳煦檔》(1), p. 448.

183) <王有齡致吳煦函>, 1860. 12. 18, 《吳煦檔》(1), p. 451 및 同, 1861. 2. 1, 《吳煦檔》(2), p. 16도 참조.

184) <蕭盛遠致吳煦函>, 1861. 1. 28, 《吳煦檔》(2), p. 15.

185) <方德驥致吳煦函>, 1861. 1. 27, 《吳煦檔》(2), p. 13.

186) <王有齡致吳煦函>, 1861. 1 및 2. 11, 《吳煦檔》(2), pp. 7~8 및 p. 18.

187) <吳煦上王有齡稟>, 1861. 3. 5, 《吳煦檔》(2), p. 23.

188) <吳煦上王夢齡稟>, 1861. 1. 17, 《吳煦檔》(2), p. 9.

하고 있다. 또한 웨이드에 대해 그는 사람이 매우 교활하여 恭親王을 중용하여 빠르게 했다면서 그의 의도는 프랑스의 성공을 질투하여 교묘히 막는 데 있었다 하고 있다. 뭇는 이어서 웨이드가 말한 「割地之患」에 대해 지난해 가을 그들이 과연 土地를 탐했다면 어떤 빌미를 대서라도 쉬사리 얻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 하여 반박하고 있다. 또한 웨이드도 功을 자처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니, 이른바 두 가지 箝를 비교하여 가벼운 쪽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에 대한 「助剿」기대가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¹⁸⁹⁾

동일한 논리는 뭇가 沈兆霖에 보낸 서신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은 수수방관하며 남의 재해를 즐기는 가운데에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고, 프랑스는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저 「夷力」을 비는 것은 독약과 같은 것으로 극히 위태로운 증상이 아니면 결코 가벼이 쓸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나중에 「要挾妄求」를 면치 못할 것임을 알지만 당장은 아직 土地를 엿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각성의 大臣의 奏摺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이미 進言할 수 없지만, 만약 당국이 일정한 견해를 강력히 견지할 수 있다면 다시 法簡와 상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하고 있다.¹⁹⁰⁾

吳煦는 프랑스의 제의가 영국의 간섭으로 좌절되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웨이드의 「割地之患」의 논리가 간섭을 위한 협박임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좌절감 속에서 上海官紳들은 商人을 통한 워드 등 외국군인의 고용방안을 다시 제기하기도 하고¹⁹¹⁾ 「漁夫之利」를 얻어 「中興之局」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는데,¹⁹²⁾ 주목되는 것은 吳煦가 沈兆霖에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沈은 恭親王과 밀접한 관

189) <吳煦致黃蘄山房主人函>, 1861. 3, 《吳煦檔》(2), p. 38.

190) <吳煦上沈兆霖稟>, 1861. 3, 《吳煦檔》(2), p. 42.

191) <吳煦上王有齡稟>, 1860. 12. 14, 《吳煦檔》(1), p. 448; <王有齡致吳煦函>, 1860. 12. 15, 同, p. 450.

192) <吳雲致吳煦函>, 1861. 1. 18, 《吳煦檔》(2), p. 10.

계에 있었던 점¹⁹³⁾을 고려하면, 이제 「借兵助剿」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恭親王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借兵助剿」論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강의 간섭정책이 결정되고 청조가 「借兵助剿」를 인정하게 되는 새로운 局面을 기다려야만 되었다.

193) 拙稿, 〈1860年 英佛聯合軍에 대한 清朝의 對應—파아크스 拘禁事件과 恭親王—〉, 《釜山史學》 10, p. 62 참조.